

碩士學位論文

翻譯研究 I

— 『翻譯研究 I』 韓國語 翻譯 論文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科

權 呈 任

2004年 12月

翻譯研究 I

— 『翻譯研究 I』 韓國語 翻譯 論文 —

指導教授 宋 炫 宣

權 呈 任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權呈任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u>趙 洪 善</u>
委 員	<u>宋 炫 宣</u>
委 員	<u>金 中 燮</u>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5年 1月

목 차

I. 서 문	1
II. 총 론	7
1. 사고(思考)의 중요성	7
2. 원문 간섭현상	8
3. 번역원칙	8
4. 진정한 번역이란?	13
5. 번역방법	15
6. 직역할 것인가? 의역할 것인가?	17
7. 지나친 정확성	18
8. 훌륭한 번역문의 기준	19
9. 번역절차	20
10.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21
11. 언어의 다른 점	21
12. 언어의 발전	23
13. 중국어와 영어 구조 비교	23
14. 어떤 중국어로 번역할 것인가?	30
15. 백화문으로 번역하라	30
16. 음역할 것인가? 의역할 것인가?	31
17. 기존의 중국어 단어와 구를 이용하라	33
18. 긍정과 부정	35
19. 방언	35
20. 반증	36
21. 영·중 대조 번역	36
22. 기타	37

III.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	38
1. 중국어 작문 능력	38
2. 수준 높은 영어 실력	38
3. 풍부한 상식과 지식	40
4. 문자에 대한 예민함	40
5. 상상력	41
6. 근면 성실한 자세	41
IV. 참고서적	43
V. 고유명사 번역	55
참고문헌	66



역자서언

『번역연구 I』은 중국어 번역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으로,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번역 이론을 다양한 예문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한 걸음 더 쉽게 번역 이론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만 이 저서가 영중(英中) 번역에 관한 책이라는 이유로 그 예문들이 모두 영어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한(中韓)번역에도 일조를 하니 번역가들이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저서가 편찬된 지 비교적 오래되고 또 저자가 홍콩인이다 보니, 역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가 배우고 접하는 보통화(普通話, 현대 중국어의 표준어)와 다른 표현도 없잖아 있다. 여기서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번역원칙」 절에서 저자는 ‘今天是哪陣風把你吹來的呀?(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니?)’는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환영표현으로, ‘啊! 你來啦, 好極了。(왔니? 잘 왔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는 자주 들을 수 있는 인사말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今天是哪陣風把你吹來的呀?’를 써서 상대방의 방문에 ‘의외, 놀라움’을 표하기도 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본 논문 P.10 참고바람)

2. 「번역원칙」 절에서 저자는 ‘是書一出, 洛陽紙貴(책이 출간되자마자 洛陽의 종이 값이 올랐다)’라는 표현은 절대 써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洛陽’이라는 구체적인 중국지명이 들어가 있어 지나치게 중국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중국어를 기타 외국어로 번역할 때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선 안 되겠지만, 이와 반대로 번역서의 독자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독자들이 이 표현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므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된다.(본 논문 P.12~13 참고바람)

3. 「백화문으로 번역하라」 절에서 저자는 ‘卽’, ‘便’이 아닌 ‘就’를, ‘將’, ‘以’가 아닌 ‘把’를, ‘尙’이 아닌 ‘還’을, 그리고 ‘甚’이 아닌 ‘很’을, 즉 백화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재 혹은 신문을 통해 우리는 ‘卽’, ‘便’, ‘將’, ‘以’, ‘尙’, ‘甚’ 등의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논문 P.30~31 참고바람)

4. 「음역할 것인가? 의역할 것인가?」 절에서 logic은 ‘邏輯’라고 잘 쓰지 않으며, 학술계에서는 ‘理則學’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邏輯’ 역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이다.(본 논문 P.32 참고바람)

5. 「긍정과 부정」 절에서 긍정과 부정, 그리고 이중 부정의 경우 되도록 원문의 표현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한국어에도 이중부정형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중부정형을 그대로 살려 주기보다는 강한 긍정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국인 정서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역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중부정을 강한 긍정으로 번역하였다.(본 논문 P.35 참고바람)

6. 「고유명사」 장에서 저자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고유명사의 예와 함께 그가 생각하는 올바른 표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자의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하다. 한 예로 저자는 Cervantes(세르반테스)의 경우 원음에 더 가까운 ‘塞房泰斯’로 번역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전대로 ‘塞萬提斯’로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露茜(Lucy)’의 경우, ‘茜’의 발음이 ‘西’가 아닌 ‘欠’임을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함으로써 Nancy, Lucy의 -cy를 ‘茜’으로 번역해선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조속히 반영돼야 할 점이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본 논문P.63, 64 참고바람)

본 논문을 쓰면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역원칙에 따라 원문의 뜻에 충실하며 적절한 첨가와 삭제를 하고, 직역과 의역을 절충하여 한국어다운 표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용어선택 등에 있어서 중국어의 영향 및 간섭을 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에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정(叱正)을 바라며, 끝으로 본 번역서가 전반적으로 번역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으므로, 번역에 관심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에 관심 있는 이들의 학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I. 서 문

요즘 번역문들을 보면, 물론 가까스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어다운 중국어가 아닌 또 다른 언어로 자리 잡았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번역가는 의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영문 단어를 직역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특허’라도 받은 것처럼 당연시된다. 마치 타인의 아내를 차지한 남자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오히려 ‘진짜 남편’이 되고, 불쌍한 원래 남편은 아내를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권리마저 상실한 것과 같다.

만약 누군가가 번역문이 중국어답지 않다고 비평한다면, 번역가는 당당하게 되물을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 몰라요? 현대 창작물도 이렇게 쓰지 않나요? 언어는 발전하고 있는데, 어째서 굳이 옛 것만 고수해야 하나요? 원문을 직역하면 수월하고 참신하잖아요, 또 독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왜 번역문은 반드시 『紅樓夢』과 같은 백화문¹⁾이어야 하나요? 게다가 영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글의 새로운 유행도 소개할 수 있고, 또 (동사용) 중국어도 풍부해지니 좋지 않습니까?”라고..... 필자는 그가 참으로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본서를 집필하는 필자의 입장은 번역은 중국어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의사 표현방법, 단어, 문장 구성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국어에 없는 표현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나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는 독자라면, 이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된다.

이 책에서는 주로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주의하고 예민하게 대처해야 할 점, 그리고 번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제시하였

1) 역주 : 白話는 唐·宋이래 구어(口語)의 기초 위에 형성되어, 처음에는 단지 통속문학에만 쓰이다가, 5·4 운동 이후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唐·宋의 초기 백화는 당대의 변문(變文), 송대의 화본(話本) 등에 보인다. 물론 당시의 사대부들은 백화로 쓰인 문장을 경시하였다. 그러나 문법을 몰라도 아는 한자만 있으면 말하는 대로 적는 백화문이 일반민중들에게는 편리한 표현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다. 이러한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우선 본서 집필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번역에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배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는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배울 수 없는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 두기로 한다. 또한 필자는 잘못된 부분과 부적절한 부분,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번역문을 주로 지적했으며, 모범답안 제시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약 30년 전 H.W.Fowler와 그의 남동생 F.G.Fowler가 쓴 *The King's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를 읽은 적이 있는데, 본문 내용 중 매우 인상 깊은 한 단락이 있었다. 이는 영문법 중 수사(修辭)에 대해 다룬 책으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ince the positive literary virtues are not to be taught by brief quotation, nor otherwise attained than by improving the gifts of nature with wide or careful reading, whereas something may really be done for the negative virtues by mere exhibition of what should be avoided, the examples collected have had to be examples of the bad and not of the good.

이런 방법은 실질적이고 유용한 과학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교하고 훌륭한 번역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증문학을 연구하고, 중국어로 얼마나 많은 책을 저술해야만, 또 영문학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번역을 해야만, 원문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번역문에 별 문제만 없다면, 즉 원작의 감동을 느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문장이 명확하고 매끄럽기만 하다면, 이런 번역도 나름대로 괜찮은 번역이다. 다시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문장을 가다듬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면 나는 어쨌든 간에 '적절한 번역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즉 누군가가 한 단어를 잘못 번역했다면, 나는 어쨌거나 올바른 번역방

법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예들은 많은 개선 방법 중의 하나일 뿐, 결코 '유일'한 방법도,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또한 다시 신중히 고려해 봐야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미리 밝혀두고 싶다.

둘째, 예문을 들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자주 범했던 실수들에 대한 실례를 들었으며, 절대 없는 것을 허위로 꾸며내지 않았다(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Fowler 형제들처럼 번역가의 이름을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 한 치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번역을 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심지어 번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어와 영어가 현저히 다른 경우('How do you do?'처럼)에는 이런 위험성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말이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통하지 않는 문장이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번역시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문자 하나하나에 예민해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 필자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셋째, 필자는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문제만 다뤘을 뿐,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영(中英) 번역과 영중(英中) 번역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별개의 문제로 각각이 요구하는 기술 또한 다르다. 그리고 영작실력은 뛰어나지만 중국어 특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중영번역에 관한 책은 영어로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성경』이나 셰익스피어, 밀튼 등의 유명한 작품을 번역할 때는 이에 대한 전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 분야의 이론은 가장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부분이다. 필자는 책 서두에서 번역 이론에 대해 논하였는데, 아마 수많은 독자들이 따분해 할 것이다. 번역에 대해 연구하고 다시 이론을 접해도 늦지 않으므로, 실제로 따분하다도 생각되면 다음 내용을 먼저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론부분을 미리 읽어둔다면, 설사 대충 읽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가 번역 입문자를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베테랑 번역가들에게도 참고가 되

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내가 거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나 자신이 베테랑 번역가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미리 밝혀둔다.

창작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서를 한 번 읽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작금의 줄역들이 일반 창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 여러 부분에서 오늘날 백화문 문법과 중국어 어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번역가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필자는 중국어를 가르칠 때 항상 번역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번역은 예술, 즉 직접 작업하는 예술이다. 훌륭한 번역을 하고 싶다면, 중국어와 영어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번역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번역 관련 서적 한 권만 읽고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嚴復가 말한 “식단을 베껴 쓴 것만으로 배부르다 여기고, 책의 목록을 외웠다고 해서 글씨쓰기를 게을리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희망이 없구나.”라는 말과 다름없다. 또한 이 책에서는 글을 쓰는 이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는 마치 요리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불의 세기·시간·조미료로 간하는 법을 가르치지, 처음부터 재료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독자 스스로 중국어와 영어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언제나 국고파(國故派)와 진보파간의 논쟁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번역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고파(國故派)’란 ‘영어에서 말하는 purist, 즉 문자 분야를 중시하고 순수성을 추구하며, 정체불명의 중국어답지 않은 중국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자 필자가 차용한 명사이다. 1913년 영국의 권위 있는 사전학자와 문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The Society for Pure English라는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일반인에게 영어에 대한 식별과 감상능력을 훈련시키고, 영문 문자 응용 및 발전분야에 대해 교육당국을 지도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이 모임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중국 역대 문자학자 중에도 일반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준 학자가 있었다. 근대의 경우만을 예로 든다면, 吳契寧은 1935년에 『實用文字學』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조판이 잘못될까봐 손수 베껴 썼고, 顧鴻藻는 『字辨』이라는 책을 썼다. 문자에 있어서 그들은 purists인 셈이다. 그러나 작문에 있어서는 책을 저술하여 서구화된 글에 일격을 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듯 하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국고파(國故派)는 영원히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그들도 상당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보파의 '창작'의 일부는 조만간 도태되겠지만 계속 후대에 전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이 두 분야의 역량은 상대적인 것이다. 국고파(國故派)가 서구화된 중국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서구화된 중국어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가 하면, 진보파가 국고파(國故派)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국고파(國故派)의 말에 귀 기울이며 중국어다운 중국어를 쓰고 싶어 한다. 우리는 정통 중국어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와 동시에 진보파의 중국어를 전부 부정해서도 안 된다.

Fowler 형제의 *The king's English*는 상대적 역량에 대한 시금석(試金石)이라는 점에서 영어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30년 이 책의 제 3판 발행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t has sometimes seemed to us, and to me since my brother's death, that some of the conspicuous solecisms once familiar no longer met our eyes daily in the newspapers. Could it be that we had contributed to their rarity? Or was the rarity imaginary, and was the truth merely that we had ceased to be on the watch? I do not know...

H.W.Fowler는 겸손하다. 사실 이 저서는 영국과 영 연방제국에서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영어로 집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중시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영어에 정통한 선배들은 일찍이 이 형제의 책에 대해 '누구나 자세히 읽다보면 문자에 예민해지고, 영문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글이 훌륭한지 훌륭한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 책'이라고 누차 말했었다. 그들의 공로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소수파·완벽 추구파·학자·언어와 문자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언어와 문자의 순수성을 중시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사람들과는 상대적으로 이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을 두 형제는 증명하였다. 이처럼 한 나라의 문화 보존과 인

류 상호간의 이해 증진방면에서 보면, 이들의 공로는 인정된다.

나는 영국의 산문 대가인 Max Beerbohm의 말에 찬사를 보낸다. "... to seem to write with ease and delight is one of the duties which a writer owes to his readers, to his art." 그러므로 번역에도 똑같은 태도를 취하여 매사에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원래는 완전한 한 편의 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여러 장(章)과 절(節)로 나누고 있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中文語法(중국어 문법)'와 '中國의中文(중국의 중국어)' 등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예문은 단지 설명을 하기위한 것이므로 되도록 간단한 문장을 썼다. 또한 영어 원문 없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영문을 삽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문을 '충실'하게 중국어로 옮겨놓고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원문을 삽입하지 않았다.

후기 : 친구이자 시인인 黃國彬교수는 필자가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실수를 요즘 번역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 공로를 필자의 책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하다. 그러나 본서를 번역교재로 삼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2000년 7월

Ⅱ. 총 론

여기에서 언급할 내용은 일반원칙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어느 정도는 이 책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먼저 읽어도 되고, 책을 다 읽은 후 마지막에 봐도 된다.

1. 사고(思考)의 중요성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이다. 비록 오랫동안 번역을 해왔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번역은 쓸모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습관만 들게 한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보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고정된 번역을 하게 되고, 또 영문 구조도 늘 쓰던 구조대로만 번역하려 한다. 이처럼 한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떤 뜻이고, 그 문장 구조를 어떻게 바꿔 써야 자연스러운 중국어가 될지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경력이 쌓일수록 번역가의 문제점도 깊어지게 마련이다. 소위 사고라는 것은 영문의 원뜻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자신의 번역문의 문제점을 꼼꼼이 곱씹으며, 중국인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고(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의 말은 이미 줄역의 독소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선 안 된다), 중국의 고문인 시(詩)·사(詞), 그리고 『紅樓夢』, 『兒女英雄傳』과 같은 고대 소설을 자세히 읽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번역에 발전이 있을 수 있다. 신문에 게재된 번역소설이나 잡지에 실린 번역문은 번역이 너무 영어화(英語化)되어 있으므로 읽지 않는 편이 낫다. 이는 마치 장님이 눈먼 말을 타고 앞쪽에서 길을 안내한다고 해서 그를 쫓아갈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였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문제점」장 참고바람)

2. 원문 간섭현상

원문을 번역가 앞에 갖다 놓으면, 번역가는 마치 간수나 수감 혹은 남자를 유혹하는 신화 속 요부를 만난 것처럼, 자유를 잃고 원문의 지배와 유혹을 받게 된다. 번역가는 맑은 정신, 굳은 의지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래야만 번역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떠한 유혹도 뿌리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활습관과 행동자세를 쉽게 바꿈으로써 일종의 제약에 적응하기도 한다. 그리고 영어구조가 무난하기만 하면 원문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영어를 중국어로 바꾼다. 게다가 “모두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나요?”라며 음만 같다면 글자를 잘못 쓰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또한 문언문²⁾이든 백화문이든 쓰기 편한 말만 쓸 뿐, 좀처럼 문장의 조화로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번역에서 대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원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우리가 번역하면서 제약받고 유혹받는 것가지 부분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예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역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3. 번역 원칙

번역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확성과 적절성이다. 훌륭한 번역문을 보면 독자는 마치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훌륭한 번역가의 번역문을 원문과 대조해 보면, 마치 신체와 그 그림자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미숙한 번역가의 번역문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매우 힘들게 번역한 기미가 보이며, 종종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큰 잘못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어(成

2) 역주 : 5·4 운동 이전에 통용되던 고대 漢語를 기초로 한 문언 문장 .

語) 활용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훌륭한 번역가의 번역문은 글자 하나하나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번역 입문자들은 처음부터 훌륭한 번역문을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 번역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추구해야 한다.

嚴復가 말한 번역의 3대 요구사항인 信, 達, 雅에 대해 언급했던 사람은 매우 많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말한 '雅'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이 단어를 '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信, 達, 雅를 요즘 말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信 : 원저자에 대한 번역가의 책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저자의 원뜻을 중국어로 잘못 표현해선 안 된다.

達 : 독자에 대한 번역가의 서비스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역자가 아무리 저자의 원뜻을 표현하였다고는 하지만, 독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貼 : 번역문도 정확하고, 독자도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원문의 문체, 어조, 말하는 사람의 신분 등이 모두 적절하게 번역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적절성(貼) 여부에 관련된 문제이다.

嚴復가 말한 '雅'는 '말은 가식이 많아서도, 또 원뜻에서 너무 벗어나서도 안 된다'는 의미로, 그는 '바르고 고상한 문장'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어에는 '貼(적절성)'라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필자가 말하는 '적절성'은 번역문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이 지긋한 장교수와 왕 교수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시간을 정하고, 출발할 때 장 교수가 "Well, I'll be there....."라고 말했을 때, 信, 達, 貼의 기준에 따라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信 : “好了, 我會在那里。”(흐잡을 데 없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문이다.)

(“알았어, 내가 거기에 있겠네.”)

信, 達 : “好了, 到時我在那里等你。”(명확하고 매끄러운 번역문이다.)

(“알았어,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서 기다릴게.”)

信, 達, 貼 : “就這麼說吧, 我到時在那里恭候。”

(“그 시간에 제가 거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我會在那里(내가 거기에 있겠네).”도 괜찮다. 그러나 독자는 읽고나서 뭔가 좀 어색하며, 뜻도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我在那里等你(내가 거기에서 기다릴게).”의 경우는 뜻이 아주 명확하다. 우리도 친구와 약속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하는 말인가? 바로 두 노교수 사이에 오간 말이다. 점잖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말할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 3의 방식으로 고쳐봤다. 이 예는 너무 간단하겠지만 信, 達, 貼의 대체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또 다른 쉬운 예가 있다. 바로 ‘I am glad to see you’를 ‘我高興看見你。(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경우인데, 이 말은 통하기는 통한다. 원문이 간단하여 쉽게 이해되며, 번역문도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친구가 왔을 때 중국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옛 소설에 보면 ‘今天是哪陣風把你吹來的呀?(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환영할 때 하는 인사말(greeting)이다. 하지만 이렇게 번역하면 너무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울 것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아마도 ‘啊! 你來啦, 好極了。(왔니? 잘 왔어)’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번역이고 중국어다운 중국어이다.

형용사·부사·명사·성어의 여기에는 수묵산수화의 농담(濃淡)처럼 가볍고 무거움이 있다. 이처럼 훌륭한 작가가 단어 선택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지 번역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掃蕩(소탕하다)’의 대상은 반드시 나쁜 것이어야 한다. ‘敵人要掃蕩我們的基地。(적이 우리 기지를 소탕해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我們要掃蕩土匪的巢穴。(우리는 도적 떼의 소굴을 소탕해야 한다)’라고만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痛恨(원망하다)’과 ‘厭惡(혐오하다)’는 각기 다른 뜻으로, ‘I resent him’을 ‘我痛恨他(나는 그가 몹시 원망스러워)’라고 번역해선 안 되는 등 대부분이 이러한 것들이다. 또한 원문에서 표현한 친밀함, 장엄함, 익살스러움 등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번역가는 이를 전부 이해하여 표현해야 한다.

번역가는 때때로 정확성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 위험한 일을 부득이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인명(人名)이 너무 길어 일부를 생략해야 할 경우. 둘째, 형용사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몇몇 형용사의 뜻이 너무 비슷하여 그 차이점을 표현하기 힘들 경우. 셋째, 영국인들이 비교(comparison)의 결과를 중요시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비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등, 중국과 영국 두 민족의 사고방식이 다를 경우. (바로 이런 이유로 영어에서는 comparative degree(비교급)를 많이 쓰지만, 중국어에서는 better라는 단어를 그냥 '好(좋다)'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넷째, 영어의 one of the best를 번역할 경우. (이는 사실 '了不起의……(대단한……)'의 뜻이다.) 이런 문장유형의 예는 너무 많아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장 뒤쪽에 있는 「정확성에 대하여」 장 참고 바람)

번역가는 때때로 편집 작업을 해야 한다. (「편집」 장 참고 바람)

아름답고 추상적인 관념의 문예이론과 같은 산문이나 시가(詩歌) 등의 영문을 번역할 때는 단어 그대로의 직역이 아닌 의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역은 위험성이 매우 크지만, 번역가의 노력 또한 충분히 드러난다. 훌륭한 번역문은 의사전달이 직접적이지 않고 글 전체가 비유, 그것도 중국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George Gordon (1881-1938)이 'Shelly and the Oppressors of Mankind'라는 글에서 한 다음 말과 같다. But in his(Shelley's) airy and boundless temple of the spirit of which Shelley is the harmonious builder and the raptured inhabitant I take leave not only to throw away my gown but to decline the surplice.

여기에서의 gown은 대학 교수의 직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surplice는 원래 성직자의 중백의(中白衣)³⁾이지만, 여기에서는 성직자의 직위를 나타낸다. 물론 '교수'와 '성직자의 직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원문의 미묘한 '비유'와 구체적인 인상은 사라지게 된다. (스님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는 가사(袈裟)를 걸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여기에서는 이 비유를 사용할 수 없다.) 번역은 창작이 아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창작이기도 하다. 번

3) 역주 : 가톨릭에서 입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짧은 흰 옷. 성직자가 성사를 집행할 때 입음.

역이 창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번역가는 전달자 역할만 할 뿐,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번역을 창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번역가의 언어로 그 뜻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재능이 상당 부분 필요하므로, 이를 간과해선 절대 안 된다.

번역의 기본적인 태도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한 부류의 사람들은 번역문은 중국어다워야 하고, 원문의 문학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부류는 번역문은 번역문일 뿐 반드시 중국어다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의 단어를 충실히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문의 문학적 가치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서양국가에서 출판된 번역관련 서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문은, 심지어는 《성경》의 번역문까지도 자국의 문장다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번역문이 중국어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어찌됐든 간에, 번역문은 원문의 스타일로 원뜻을 표현해내야 한다. 중국어는 창작한 것처럼 뜻이 명확하고 문장이 매끄러워야 하며, 동시에 원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아름답고 정확한 순수 중국어로 표현해야 한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도 시를 시체(詩體)로 번역할지 아니면 산문체로 번역할지, 시를 번역할 때는 운을 맞출 것인지, 안 맞출 것인지 등등의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문제로, 원칙을 정해놓고도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번역의 기본적인 태도로는 '번역문은 중국어다워야 하는가? 아니면 번역문은 번역문일 따름인가?'라는 상술한 두 가지 뿐이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우리는 배불리 먹고 나서 종종 '吃過飯了(밥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飯(밥)'을 먹지 않는다. 그럼 배불리 먹었다는 뜻을 번역하고자할 때, '吃過飯了(밥 잘 먹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나는 번역할 때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히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是書一出, 洛陽紙貴⁴⁾(책이 출간되자마자 洛陽의 종이

4) 역주 : 중국 진(晉)나라의 좌사(左思)가 『삼도부(三都賦)』를 지었을 때, 낙양 사람들이 다투어 이것을 베낀 까닭에 종이 값이 올랐다는 데서 나온 말로, 어떤 책이 매우 잘 팔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값이 올랐다)라는 표현은 절대 해선 된다. 반면, '慘遭回祿(참혹한 화재를 입다)' 정도는 무난하게 통용될 것 같다. 그러므로 'Will you come over and have dinner with us tomorrow evening?'이라는 문장을 '你明天到我這里吃便飯好嗎?(내일 여기 오셔서 간단한 식사 하시겠습니까?)'라고 번역했을 경우, 안 좋은 번역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일 그에게 대접할 음식은 아마도 전병, 만두, 그리고 열 몇 가지 반찬으로, 밥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은 이 문장을 읽고, 서양 사람들이 '便飯(간단한 음식)'을 먹을 때 도대체 무엇을 먹을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4. 진정한 번역이란?

영어로 대답할 때 쓰는 yes, no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군가가 "Do you believe we can win the war?"라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할 경우, 이 "yes"를 "是的(네)"라고 번역해선 안 되며, "我相信(저는 믿습니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의문문의 동사를 빌려 대답하는 것이 중국인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대답이 "no"일 경우에도 "不相信(안 믿습니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yes'를 '是(네)'라고만 번역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Daniel Jones의 'The Pronunciation of English'에서 언급한 yes의 여섯 가지 억양을 번역해보면, 원래 억양에는 경(輕)·중(重)·상승·하강이 있고, 또 그에 따라 뜻이 완전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처음엔 강하고 나중엔 가볍고 짧게 발음하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변하면, 그 뜻은 '바로 그렇습니다'이다.
2. 처음엔 강하고 나중엔 가볍고 길게 끌면서 발음하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변하면, '당연하죠'라는 뜻이다.
3. 처음엔 강하고 나중엔 가볍게, 그리고 다시 가볍게 발음하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그리고 다시 낮은 음으로 변하면, ‘틀림없습니다’라는 뜻이다.

4. 처음엔 강하고 나중에 가볍게, 그리고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변하면, ‘정말입니까?’의 뜻이다.
5. 처음엔 강하고 나중에 가볍게,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변하면서 급하게 끊기면, 전화상에서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계속 말씀하세요.’라는 뜻이다. 이 경우의 yes가 번역할 때 가장 오류를 범하기 쉬운 용법이다.
6. 처음엔 강하고 나중에 가볍게, 그리고 다시 가볍게 발음하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그리고 다시 높은 음으로 변하면, 그 뜻은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이다.

상술한 여섯 종류의 억양은 글에서 부호로 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번역할 때, 역자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사람의 억양의 높낮이를 생각하여 그 뜻을 표현해야 한다. ‘yes’라는 단어를 보고 무조건 ‘是(네)’라고 번역해선 안 된다. 이러한 번역은 번역문 자체에만 충실한 것일 뿐, 앞서 언급한 達와 貼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yes를 무조건 ‘是(네)’로 직역하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물론 번역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영어 독음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 어느 분야에서든 독음은 매우 중요하다. 고유명사의 음역도 그러하다. 영어로 말할 때 억양의 경(輕)·중(重)·상승·하강은 번역시의 어휘선택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더욱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어기를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역은 번역이라 말할 수 없다.)

필자가 중문대학교(中文大學) 교외(校外) 연수부에서 고급 번역과정을 강의할 때, 중국처럼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는 국가에만이 고급 번역이 있을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divorce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離婚’이라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전 중국인들이 말하던 ‘出妻(아내를 내보내다)’에서 ‘出(내보내다)’자가 바로 divorce의 뜻이다. 또한 회교도인들은 아내에게 ‘난 당신이 싫소’라고 연달아 세 번만 말하면, ‘休妻(아내를 쫓아내다)’ 혹은 ‘出妻’할 수 있으니, ‘休(쫓아내다)’ 역시 영어에서 말하는 divorce의 뜻이다. 예전에 이란 사람들은 편지 한 통만으로도 ‘休妻’할 수 있었는데, 그 정황을 영어에서는 divorce

by mail이라 하고, 중국어에서는 '休書(이혼장)'라 한다. 황제가 divorce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로 '離婚'이라 하지 않고, '廢后(황후를 폐하다)'라고 한다. 이처럼 문화가 유구한 국가일수록 문화에 담겨진 의미가 무궁무진하여 그 국가의 언어를 번역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5. 번역 방법

번역이란 다른 사람이 방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지럽혀 놓고, 당신에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그는 물건들을 어지럽혀 놓을 뿐만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 숨겨 놓고 당신에게 찾도록 한다. 게다가 심지어는 없는 물건을 보충하게도 하고, 어떤 것은 버리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만족을 표한다.

Only a fool would underestimate you. 이 말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이를 '只有愚人才低估你(어리석은 자만이 비로소 당신을 과소평가 합니다)'라고 번역하면 그다지 중국어답지 않다.

이 문장을 '誰要看輕你就蠢了(당신을 과소평가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라고 번역하면 뜻이 명확해지고 중국어다워진다. 그러나 번역문과 원문에서 쓰고 있는 단어의 위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원문의 only a fool은 통째로 빼버렸고, 반대로 '誰', '蠢'은 원문에 없던 단어인데 보충해 넣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예이다. 더 복잡한 예를 들자면 끝도 없거니와 몇 배 이상 더 복잡해질 것이다.

훌륭한 번역가와 삼류 번역가는 한 가지 닮은 점이 있는데, 바로 원문에 있는 내용을 일부분 삭제하기도 하고, 원문에 없는 내용을 일부분 보태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 양자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훌륭한 번역가는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은 추가하지만, 삼류 번역가는 그와 정반대로 한다.

새로운 문법·새로운 명사를 만들어내고 삭제·추가를 할 때,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곤욕을 치르게 된다. 누군가가 잘라낸 것이 맹장인데 반해, 또 다른 누

군가가 도려낸 것은 안구일 것이며, 누군가가 한 행동이 화룡점정(畫龍點睛)인데 반해, 또 다른 누군가의 행동은 쓸데없는 짓을 한 화사첨족(畫蛇添足)일 수 있다.

번역은 고생하고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 일로, 완벽한 번역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몇 안 된다.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더 못하고의 정도의 차이일 뿐, 뛰는 자 위에는 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번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을 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 여러 사람의 번역 스타일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진정한 번역의 대가에게 번역문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번역가는 사방에서 공격 받으면서 방어선을 어렵게 지키는 형상에 비유될 수 있다. 그리고 번역문은 영원히 완벽하게 고칠 수 없을 것이다. 틀린 부분이 극히 적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면 괜찮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번역의 대가인 Denver Lindley는 번역할 때 아무리 고심해도 떠오르지 않았던 적절한 문장이, 번역문을 발표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생각난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번역이란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해석된 것을 그대로 번역문에 사용해선 안 된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번역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직역이란 이처럼 사전상의 해석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으로, 이런 번역은 가장 심한 줄역에 해당하며 물론 번역이라고도 할 수 없다. 번역한 문장의 뜻을 독자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번역은 예술이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번역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훌륭한 번역은 원문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고, 마치 우리가 중국 작가가 쓴 저서를 읽는 것처럼 막힘없이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번역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을 하기란 쉽지 않다. (원래 중국에는 개념이 없는 영어권 사상의 경우, 이를 이해하기 쉬운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많은 잘못된 번역문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이유로 자신의 줄역을 합리화시켜선 안 된다)

6. 직역할 것인가? 의역할 것인가?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번역은 번역이라는 것이다. 잘된 번역에는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다. 직역할 수 있는 부분은 직역하고, 의역해야 할 부분은 의역해야 한다. 오역해 놓고 직역이니 의역이니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직역할 수 있는데 의역한다거나, 의역해야 할 부분을 직역하는 것은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영어에서는 편지서두에 보통 Dear Sir라고 쓰는데, 이는 중국어의 '逕啓者(제번하옵고)' 혹은 '敬啓者(삼가 아뢰니다)'에 해당하는 말로, 이를 '親愛的先生'으로 직역하는 것은 오역이다. (개인적인 편지의 My dearest Jo 등은 별개의 문제이다)

번역문은 종류와 필요에 따라서 의역과 직역의 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약이나 법률문서는 분쟁 유발을 우려하여 종종 직역하거나 딱딱하게 번역하며 원문의 의미 전달에만 중점을 둘 뿐, 매끄럽고 우아하게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영어의 parts of speech마저도 바꿀 엄두를 못 낸다. 또한 주로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문예작품 등은 단어도 우아해야 되고, 성조도 곱고 낭랑한 리듬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끔은 복잡하고 쓸모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가는 때때로 번역문의 용도가 무엇인지, 즉 원문의 대강의 뜻을 알기 위함인지, 아니면 원문에서 사용한 단어를 보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번역문을 여러 사람이 둘러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용도를 미리 파악한 후 번역에 착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원문의 내용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혹은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여 원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단어의 표면적 의미대로 직역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다. 만약 원저자가 중국어를 잘 알 경우, 직역한 번역문을 보면 틀림없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소?”라며 크게 화낼 것이다.

7. 지나친 정확성

‘아무리 정확성을 강조하더라도 100%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번역하는 사람이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말과 언어 습관대로 아무렇게나 번역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번역문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지, 또 의미가 정확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Robert W. Corrigan은 ‘Translating for Actors’에서 이에 대해 적절하게 잘 말하고 있다.

Accuracy must not be bought at the expence of bad English. Since we cannot have everything, we would rather surrender accuracy than style. This, I think, is the first principle of translating, though it is not yet accepted in academic circles. The clinching argument in favour of this principle is that, finally, bad English cannot be accurate translation—unless the original is in bad German, bad French, or what have you.



많은 번역가들이 ‘정확성’만 중시하여 몹시 조잡한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그런 번역가들은 상술한 문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문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부자연스러운 중국어 번역문은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보는 사람도 없는 어색한 중국어 번역문, 이런 번역문이 왜 필요하겠는가?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의 앞뒤 문장을 바꾸고, 첨가·삭제하는 것은 원저자와 독자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일이거니와, 최선을 다했으므로 오히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더욱이 중국어와 영어의 관습적인 표현방법이 다르다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적당한 번역문을 궁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첨가하고 삭제해 버리는 일부 게으른 사람들이 위에서 한 말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훌륭한 번역문은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어의 표면적 의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하고, 중국어와 영어가

기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상술한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8. 훌륭한 번역문의 기준

우리가 글을 평론하는 기준으로는 ‘표준어 혹은 일반 중국인이 하는 말’과 ‘중국인이 쓴 글’ 두 가지가 있다. 이처럼 우리는 글을 쓸 때 구어 혹은 문자를 기준으로 쓰지, 이 밖에 기준으로 삼을만한 제 3의 것은 없다. ‘나는 이 문장을 영어식으로 썼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영어식 중국어라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我們童年和青年時候的行動與事件，現在成爲我們最平靜地觀察着的事情。它們像美麗的圖畫一樣地在空中展開。(우리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겪은 행동과 사건은, 현재 우리가 가장 차분하게 관찰하는 일이 되었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그림처럼 공중에 펼쳐져 있다.)’ 이 두 문장은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중국인이 쓴 것 같지도, 또 중국인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기 때문이다. 번역가는 두 번째 문장의 ‘它們’은 영어의 ‘they’를 번역한 것으로, 추호도 잘못 번역하지 않았다고 변론할 수도 있다. 그렇다, 영어로는 they가 맞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它們’은 ‘我們童年和青年時候的行動與事件’을 대체하지 못한다. 필자처럼 원문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들이 이 두 문장을 읽었을 경우,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정확하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번역은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감히 장담한다.

‘읽으면서 번역문 같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라는 말은 칭찬이다. (물론 정확하게 믿을 수 있게 번역해야 한다)

번역문의 기준이 몇 등급으로 나뉘는지는 몰라도, 대략 나눈다면 ‘중국어 같다, 그럭저럭 괜찮다(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가 아니다’의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영문의 유행 스타일을 중국어로 소개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장 뒤쪽에 나오는 「문자의 발전」을 참고하기 바란다.

9. 번역 절차

그 누구도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번역문을 더 잘 다듬고 고쳐나갈 수 있음을 필자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이치를 그들에게 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점이 아쉬울 뿐이다.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아니 한 가지 질문만 해보자. '이 번역문이 중국어답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읽고 금방 이해할 수 있을까요?'라는..... 이어서 나는 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가장 자주 부딪치게 되는 골칫거리를 해결함으로써 원문의 간섭현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상적인 번역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문을 읽고 이해한 후 원문대로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지 찬찬히 살펴본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글자가 아닌 경우 삭제하여 원문의 뜻과 문맥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만약 차질이 생긴다면 그 글자를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글자를 첨가하여 원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이처럼 첨삭(添削)한 이후 원문과 다시 비교·대조해 본다.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어기의 경중(輕重)이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원문의 숨겨진 의미를 번역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 일일이 비교·대조 한다. 원문의 뜻은 완전 소화시켜 표현해야 하고, 번역문은 퇴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력자들은 아마 단숨에 번역을 마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퇴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이런 번역방법은 물론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그러나 번역이란 원래 힘든 작업이다.

요리사는 밭에서 뽑은 채소와 도살한 돼지를 그대로 남에게 먹이지 않는다. 재료를 깨끗이 씻고 알맞게 삶아 조미료로 양념한 후에야 밥상에 올린다. 위에서 소개한 번역방법은 마치 훌륭한 요리사의 요리방법과도 같다.

우선 문장 전체, 글 전체를 훑어본다. 한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 단락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면 번역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 글 한 편을 끝까지 읽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번역문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구성방식은 모두 글

전체, 단락 전체, 문장 전체와 관련 있다. 게다가 한 문장의 뜻도 그 문장 전체를 다 보고나서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긴 문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It suits the company's purpose that... and that... 이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첫 번째 that 뒤에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로 첫 번째 that에서 끊고, 두 번째 that 뒤의 말은 별개의 것으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10.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일반적으로 번역가는 원문을 읽고 난 후 중국어로 번역한다. 그리고 원문이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동안, 번역문이 훌륭하고 의미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번역가와 달리 독자는 원문을 읽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독자가 번역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역자가 의미 전달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달려있다. 번역을 마친 후 더 이상 번역문을 가까이 두지 말았다가 원문내용을 잊어버리면, 그 때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 독자가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수시로 자기 자신을 독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도 원문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번역문을 보여준다면, 그가 수많은 독자를 대변해줄 것이다.

11. 언어의 다른 점

번역이란 결코 단순히 말 한 마디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번역가는 알아야 한다. Charles W. Ferguson이 이에 대해 잘 말해 주었다.

A word is a world. It is history in the briefest form. It is a spot on a page but

often a story of great events and movement. You can't examine a word and learn it well without learning more than a word.

그러므로 번역가는 모든 영어권 민족의 사상·문화·학술·종교·예술·역사·지리·공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수많은 분야를 완전히 섭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어책을 많이 읽고 참고서적도 많이 찾아보고, 그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서적에 관해서는 「참고서적」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영국의 현대시인 Stephen Spender는 'Goethe and the English Mind'라는 글에서 매우 심오한 의미가 담긴 말을 했는데, 이는 번역가가 꼭 기억해 둬야 할 내용이다.

When two compatriots speak to one another in their common language, both are speaking against the background of a common environment, education and tradition. But when two people who are foreigners to one another speak, each in his own language, then, on the assumption that each understands the other's perfectly, a difficulty arises which is beyond the difference of language itself. There is inevitably a collision of backgrounds, of tradition, of environment, which each language carries with it. The mere understanding of what words and sentences mean is not enough. To understand, each has to enter into the mental landscape, the history, the stage-setting of the other's mentality.

Spender가 말한 단락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나라 사람 두 명이 같은 언어로 대화할 경우, 그들의 배경·환경·교육·전통은 모두 같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 두 명이 각자의 모국어로 대화하고,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듣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 때에는 언어자체의 다른 점 이외에도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언어 자체에는 원래부터 각기 다른 배경과 전통, 환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와 문장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쌍방이 모두 상대방의 지식·경력·학식·교양 정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12. 언 어 의 발 전

번역가는 언어 발전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에 방해가 아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과해선 안 된다. 번역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언어를 창조·수정하기도 하지만, 파괴하기도 한다.

언어는 항상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언어에는 그 언어만의 특징이 있으므로 함부로 바꾸어선 안 된다. 두 가지 언어와 문자가 접촉하고 두 민족이 교류할 때, 언어는 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특히 많은 변화를 보인다. 이로 인해 언어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사람과 외국어의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비록 실수는 많이 하지만 나름대로 역량이 있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Sir Ernest Gowers의 말에 따르면, 영원히 타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항상 일리 있는 말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듣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절충하는 가운데 발전을 이루며,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서문」에서 '국고파(國故派)'에 대해 언급한 단락 참고 바람)

13. 중국어와 영어 구조 비교

중국어와 영어는 구조적인 면에서 한 가지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간단한 말인 경우, '他今年十二歲(그는 올해 12살이다)'와 'He is twelve years old' 처럼 영어와 중국어 구조는 비슷하다. (계산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서양 사람은 중국인 나이 14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대충 계산할 수밖에 없다. 1월에 태어난 서양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에서 양력

1월이면 음력으로는 연말에 해당하므로, 한 달이 지나면 중국인은 벌써 두 살이 되지만, 서양인은 여전히 한 살이 채 안 된다. 출생 년·월·일이 나와 있는 경우, 특히 전기(傳記)를 번역할 때는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 즉 수많은 중국어 단어들은 따로 떼어 놓아도 상관없지만, 영어는 연결사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 know a man who knows a boy who has a cousin who met the richest banker in town, Morse.'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 문장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굳이 이렇게 쓰려면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중국어로는 불가능하다. 만약 이 문장을 번역한다면 쓸데없이 말만 길어질 뿐이다. '我認識一個人，他有一個表兄，這個表兄呀，還認識城里最有錢的銀行家毛斯呢。(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에게는 외사촌 형이 한 명 있어. 이 사촌형은 말이야, 시내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인 모스 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야)' 만약 이 문장을 연결사를 이용하여 번역하면, '我認識一個有一個認識城里最有錢的銀行家毛斯的表兄的人。(나는 시내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인 모스 씨를 알고 있는 외사촌형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으로 번역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잘못된 번역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중국어와 영어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는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수많은 조잡한 번역문의 문제점이 바로 내용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억지로 연결시키는 데 있다.

If in time of war the sense of patriotism is an honorable bond, perhaps the sense of dignity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has a stronger binding force than we can realize.

이 문장은 원문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如果戰時愛國感是光榮的束縛，那麼也許一個人作為他所屬的社團的一分子的尊嚴，具有遠較我們所能明白者更為有力的束縛力。(만일 전시(戰時)라면 애국심은 영광스러운 구속일 것이다. 그러면 소속된 사회집단의 한 일원으로서의 그의 존엄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원문에서 if는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연결사'이고 than은 비교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번역문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미는 맞게 번역되

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번역문을 보면 첫째 중국어답지 않고, 둘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영문을 먼저 보고나서 번역문을 봐야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번역은 훌륭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서는 '연결사'를 포기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굳이 필요치 않은 '정확성'을 포기하면 번역문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愛國心光榮的束縛, 其實身爲團體一分子的尊嚴這種想法的束縛力更強, 也許我們還沒体会到呢。(전시(戰時)의 애국심은 영광스러운 구속이다. 사실 자신이 집단의 한 일원이라는 그 존엄성이 더욱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어에서는 마치 하나로 연결된 사슬처럼 한 쪽만 들어올리면 사슬 전체가 모두 따라 올라오게 되지만, 이와 달리 중국어 번역문에서는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어 번역문을 자세히 보면, 영어에서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비록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단지 형식적인 면에서 '연결사'가 없을 뿐, 그 맥락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여기서의 if는 결코 '가정'의 뜻이 아니다.

「영문자」장의 'if'를 참고하기 바람)

溫庭筠의 '商山早行'에 나오는 '鷓聲茅店月, 人跡板橋霜'은 그 뜻은 명확하지만 문법적으로 가장 연결이 안 되는 한 예이다. 현대시인 Edmund Blunden의 'Half a Century'라는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영시(英詩)가 산문처럼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Sweet this morning incense, kind
This flood of sun and sound of bees...

이 시에도 주동사와 연결동사 verb to be, 그리고 연결사 and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영어 산문에서는 여러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와 달리 중국어는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만 그럴 뿐,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He enjoyed a lucrative practice, which enabled him to maintain and educ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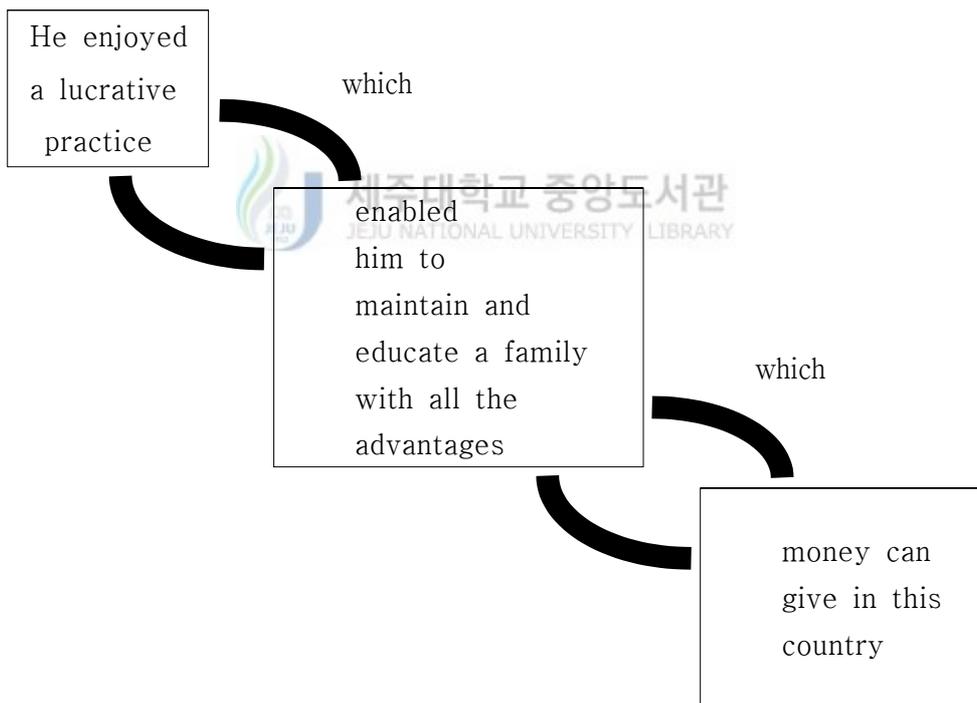
family with all the advantages which money can give in this country.

—Anthony Trollop

이 문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He enjoyed a lucrative practice
2. (His) practice enabled him to maintain and educate a family with all advantage...
3. Money can give in this country advantages

그림으로 연결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연결사'는 바로 which이다.(물론 두 번째 which는 생략 가능하지만, 문법구조상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중국어 번역문의 구조를 다시 보

도록 하자.

他業務很賺錢, 够養家庭, 够教育子女了, 所有在國內錢能換來的好處都齊了。(這一句不要譯成: ‘他享受一種賺錢的業務, 那業務使他能以金錢在本國所能給人的一切好處, 養活及教育一家。’))

그는 돈을 잘 번다. 그래서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충분하다. 국내에서 돈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다 누린다. (이 문장을 ‘그는 돈 잘 버는 일을 누리고 있다. 그 일은 그로 하여금 돈이 국내에서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이점으로 한 가정을 부양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한다.’라고 번역 해선 안 된다.)

이 중국어 문장에는 몇 가지 성분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없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소위 상산(常山)의 뱀⁵⁾이 머리를 공격당하면 꼬리로 방어하는 것처럼, 설령 ‘연결사’가 없다 하더라도 의미는 영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명확하다. 영문에서 ‘연결사’는 which, that뿐만이 아니라, in, to, on 등의 prepositions(전치사)와 and, or

5) 역주 :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篇)」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유능한 장수의 용병술(用兵術)은 예컨대 상산(常山)에 서식하는 술연(率然)이란 큰 뱀의 몸놀림과 같아야 한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날아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덩벼든다. 또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한꺼번에 덩벼든다. 이처럼 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conjunctions(접속사), to do, to be 등등의 infinitive(부정사), 그리고 present participles(현재분사) 등도 자주 사용된다.⁶⁾

긴 영어문장은 문장 전체가 수많은 고리로 연결된 하나의 사슬과도 같다. 그러나 중국어 문장은 그와 반대로 한 조각 한 조각의 케이크처럼 여기 저기 따로 떨어져 있다. 번역가가 만약 이런 중요한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영문을 번역한다면, 아마도 긴 문장을 끊어 읽지 못해 번역하는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글에는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즉 위문장이 있어야 아래문장도 있는 법이다. 번역하는 사람은 원문을 분해하여 중국어 구조에 맞도록 재조립해야만 하는데, 이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원문의 연속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 문장만 봤을 때는 문장을 분해하여 재조립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아래문장과 의 연관성이 사라지면 그 글을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득 전에 읽었던 글 한 편이 생각난다. 위문장 문미에 '青春'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다음문장에 바로 이어서 이 '青春'이라는 단어가 한 사람의 노쇠함을 말해주었다. 이 두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심리적으로 '青春'이란 단어를 통해 '노쇠함'의 뜻을 연상시킨 것이다. 만약 번역문에서 '青春'을 문두에 쓴다면, 아래문장과 너무 동떨어지게 되어 이런 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문장 '노쇠함'에 대한 연상 작용을 불러일으키기 쉽도록 위 문장의 '青春'을 문미에 쓸 방도를 궁리해야 한다.

또한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중국어와 영어의 표현방법은 다를 것이다. 영어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반면, 중국어 순서는 그와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절대 직역해선 안 된다.

아래의 영문과 그 번역문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즉 구조적으로 볼 때, 원문은

6) 문법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unattached participles은 매우 잘못된 영어 표현이다. 이에 대해 M.E.U.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We beg to enclose herewith statement of your account for goods supplied, and being desirous of clearing our Books to end May will you kindly favour us with cheque in settlement per return, and much oblige. 이 문장의 being은 we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에 나오는 you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이 영문은 자연스럽지 않다. 소위 unattached는 being이 you와 연결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는 엉터리 영어이다. 하지만 이 예에서 우리는 영어가 연결 관계를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번역문은 세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원문에는 과거분사(endowed), 현재분사(participating), 전치사(in), 접속사(and), 콜론(:) 등이 계속 쓰였지만,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Asia, endowed with the first fruits of the sun, participating in the daily rite of creation, in the very origin of light, and, as the colours of dawn seemed to betoken, resplendently rich, was held by early Western peoples to be the world's perfect and more marvellous part: a belief endorsed for christendom when its nearer shores became the Holy Land.

Vincent Cronin

The Wise Man from the West

在歐洲人眼中，亞洲得天獨厚，位於發出光明的地方，參與造化的日常儀式，先得到太陽的厚賜，好像燦爛的晨曦預示的一般，富足無比。因此早期西方人當它是全世界十全十美，格外不可思議的地方。等到它最靠近歐洲的海岸變成了聖地的時候，基督教所及的地區認為這個信念已獲得了証實。

《西泰子來華記》

思果譯，香港公教真理學會出版

유럽인들의 눈에 비춰지는 아시아는 광명이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여 대자연의 일상의식에 참여하고, 태양의 후한 선물을 먼저 얻어, 마치 찬란한 아침햇살이 예시해 주는 것처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넉넉함을 지닌,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진 대륙이다. 그리하여 옛 서양인들은 아시아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완벽하며, 유난히 불가사의한 곳으로 여겼다. 그래서 유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시아 해안이 성지(聖地)로 변했을 때, 기독교가 파급된 지역에서는 그들의 신념이 실증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서태자의 중국기행기』

思果譯，香港公教진리학회 출판

14. 어떤 중국어로 번역할 것인가?

번역에는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점들이 있다. 중국과 서양의 관념·지식·사고방식의 차이가 그 첫째이고, 그 다음이 언어 차이로 인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관념은 같고 언어만 다르다면, 'you're the new boy?'는 '你是新來的學生吧?(너 새로 온 학생이지?)'로 단어나 문장만 바꿔 쓰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번역할 때, 중국어라는 또 다른 문제점에도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백화문을 사용한지 어언 몇 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5·4운동 시기를 겪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문언문에 대한 기초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백화문을 잘 쓰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문언문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모든 문언문의 단어·작문법을 백화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든가 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문언문에 대한 기초도 없으면서(선집(選集) 중의 『左傳』, 『詩經』을 읽어본 사람은 있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 문언문의 허자(虛字)와 단어를 남용한다. 이렇게 번역가의 손에 의해 중국어는 더욱더 곤욕을 치르게 되며, 또 잘못된 문법,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단어 사용 등으로 인해, 문장이 어색해지고 아예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번역에 대해 논하기 전에, 어떤 중국어로 번역해야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백화문으로 번역하라

되도록이면 백화문의 허자(虛字)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就'('卽', '便'을 쓰지 말고), '把'('將', '以'를 쓰지 말고), '所以'('是以', '因之'를 쓰지 말고), '還'('尙'을 쓰지 말고), '都'('皆'를 쓰지 말고), '很'('甚'을 쓰지 말고)을 사용한다. ('之'

자는 별개의 문제이니, 나중에 토론하도록 한다)

‘始末(처음과 끝, 시말)’, ‘征帆(멀리 가는 배)’, ‘貿然(무턱대고)’, ‘後顧之憂(뒷걱정)’ 등 오늘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언명사·형용사·부사·성어 등을 쓴다.

글자 수를 줄이고, 들었을 때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 글의 제목·표제·고유명사에는 문언명사를 적당히 사용한다.

새로 나온 명사는 영어의 그리스·라틴 어원을 찾아서 적당한 중국어로 번역한다.

상술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중국어 문장을 쓸 때 필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다. 물론 글의 종류마다 사용하는 문언문과 백화문의 성분은 다르다. 물론 정론(政論)이나 뉴스, 공문 등의 내용에는 문어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쓸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볼 책을 번역하면서 周秦諸子 혹은 『史記』, 『漢書』에 나오는 단어와 성어를 사용한다면 미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글을 소설체로 번역해선 안 되듯이,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글을 뉴스체로 번역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옛 글자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옛말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므로 번역시 옛글자나 옛말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하지만 외국어·외국글자와 비교해 보면 (phlegmatic을 ‘粘液的’로, cast를 ‘卡士’로 번역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옛글자와 옛말이 더 이해하기 쉽기는 하다.

16. 음역할 것인가? 의역할 것인가?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음역이 존재해왔다. 예전 소설에 ‘德律風’이라는 명사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전화’를 말한다. 음역으로 통용되는 명사에는 盤尼西林(페니실린), 杯葛(보이콧)가 있다. 그러나 ‘禁運(embargo 무역금지)’은 ‘因因果’라고 쓰지 않는다. 雷達, 邏輯, 密斯特(Mr.), 咖啡, 沙發, 士担, 燕梳(insurance) 등등의 음역명사들은 광동어에 더 많이 쓰인다. 음역하는 방법이 얼마나 현명하지 못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한 단락 써 보았다. (전해들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前天我坐特蘭姆(tram)到朋友家, 他們要去看一出莫非(movie), 說卡士(cast)好極了, 個個費司(face)佛陀真涅克(photogenic), 斯多利(story)里有好幾個克拉麥克司(clic max)、安丁(ending), 尤其是德拉馬蒂克(dramatic)。

그저께 나는 트램(시가 전차)을 타고 친구 집에 갔다. 그들은 무비 한 편을 보러 가기로 하였는데, 캐스트가 쟁쟁하고, 개개인의 페이스가 포토제닉하며, 스토리에 클라이막스와 엔딩 부분이 많아, 더더욱 드라마틱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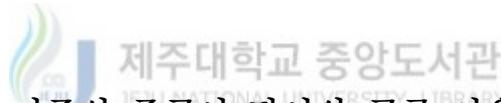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음역된 단어들 이미 통용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페니실린의 공식 번역명칭인 ‘靑霉素’는 그 뜻도 내포하고 있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는 걸까? 대다수의 음역한 단어들은 경제적이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음역한 단어는 의역한 단어보다 한 글자가 더 많다. parliament(國會)는 예전에 ‘巴力們’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역시 한 글자가 더 많다. 하지만 이 단어는 오래전부터 상용되지 않고 있다. ‘雷達’ radar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원래 radio detecting and ranging이라는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無線電定位器(무선전기 위치측정기)’라고 의역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지 긴 편도 아니다. 그러나 雷達라는 두 글자의 뜻으로 볼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번역이다. ‘聲納’ sonar 역시 음역한 단어이다. 이는 sound navigation ranging이라는 세 단어의 첫 글자 자모를 따서 만든 것으로, 의미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를 ‘水中電波定位器(수중전파 위치측정기)’(약칭 ‘定位器’)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logic과 같은 명사들은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번역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사람들이 이 단어의 정의를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음역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 그런데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지 않는 단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현재 logic을 ‘邏輯’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며, 학술계에서는 ‘理則學’라는 용어

를 선호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음역하는 방법이 편리하고 간단하며,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모두들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서구화된 중국어가 처음에 볼 때는 좀 어색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쓰는 사람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견해와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말하면, 번역에 쏟아 부은 온갖 열정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번역시 명사는 무조건 음역하고 구성방식은 영어식으로 따르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은가?

또 어떤 사람은 세계는 결국 하나의 국가가 되고 언어도 한 종류밖에 남지 않을 것이므로, 음역하는 것이 더욱 장기적인 안목을 지닌 생각이라고 말한다. 만약 이 말이 정말 틀림없다면, 필자는 '중국어를 없애고, 차라리 우리 모두 영어를 배우자'라고 주장하겠다. 하지만 중국어는 소멸될 수도 없거니와 소멸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중국어 보존에 힘쓰도록 하자.



17. 기존의 중국어 단어와 구를 이용하라

To kill two birds with one stone을 '一箭双雕(일석이조)'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가가 영문 원뜻에 딱 맞는 중국어를 찾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엄격히 말하면, 오늘날의 '一箭双雕'에는 '어떤 사람이 얻어서는 안 될 두 가지 물건을 얻다'처럼 안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에는 이러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一舉兩得(일거양득)'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번역할 때 중국어에 없는 내용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Mrs. Grundy'는 Morton이 쓴 희극 *Speed the Phough*의 주인공 Dane Ashfield가 종종 얘기하는, 성품이 곧으나 도량이 좁으며, 판에 박힌 듯한 생활을 하는 이웃집 할머니의 이름이다. 사전에서는 이를 '世評'이라 번역하고 있지만, 결국 원뜻을 완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아무리 세심한 번역가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 기존의 중국어로 표현해야 한다. 만약 없

을 경우에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이미 있는 단어를 재창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인 듯 하다. 이는 다른 단어로 중국어의 복수형을 대체하는 것과 같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這批強盜(이 강도떼)

這些學生(이 학생들)

這班家伙(이 녀석들)

各地選手(각지의 선수들)

中外名醫(국내외 명의들)

이 경우는 '們'을 덧붙일 필요 없다. 또한 '童子軍要日行一善(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은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의 원문에는 복수형 s가 쓰였지만, 중국어에선 '們'을 쓰지 않아도 그것이 모든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영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miracle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중국어로 표현되지 않는 단어도 있다.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miracle이 '奇迹', '神迹'의 뜻을 다 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奇迹'로 번역해 버리는데, 물론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miracle에는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어서 영어권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중국인들이 '奇迹'라는 단어를 듣고 떠올리는 이미지는 완전히 같지는 않다. 시골 사람이 말하는 miracle은 '關夫子顯聖(관우의 신령이 나타나는 것)', '觀世音菩薩顯靈(관세음보살의 영험함)' 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miracle을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奇迹'라는 단어 사용이 그리 적절하지 않음을 얘기하고 싶은 뿐이다. 게다가 영어에서는 miracle을 상용할 수 있겠지만, 중국어에서 '奇迹'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유난히 눈에 거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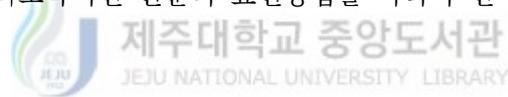
어떤 명사가 문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할 경우, 해석 한 마디로 대체해선 안 되며 주석을 달아 부연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

며, 만일 번역문이 완벽하다면 굳이 주석을 달 필요는 없다.

이에 관해서는 본서의 「중국어 성어의 이용과 용화 습관」 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긍정과 부정

원문에서 good, bad 등 긍정형(positive)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도 되도록이면 긍정형으로 쓰고, 만약 not good, not bad처럼 부정형(negative)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에서도 되도록이면 부정형으로 써야한다. 영어에는 He is not incapable of...처럼 double negative(이중부정)로 말하는 방법도 있는데, 중국어에도 ‘他并不是不能……(그는 결코 ……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이라는 문구가 있다. ‘不好(좋지 않다)’와 ‘坏(나쁘다)’의 뜻은 같아 보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되도록이면 원문의 표현방법을 따라야 한다.



19. 방 언

자기 고향 방언을 써 놓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번역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번역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어이다. 비록 방언문학이 그 자체로서 가치는 있지만, 방언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번역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령 북경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북경 사투리 사용은 피해야 한다. (중국의 몇몇 영중 사전 편집자는 吳語(중국 蘇州의 방언)권 출신으로, 외국인 인명과 외국지명의 음에도 吳語 음을 사용하였다. 한 예로 Edward를 ‘愛德華’로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20. 반 증

때로는 역으로 번역해 봄으로써 단어가 맞게 번역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emotion을 '感情', '情緒'로 번역했을 경우, 이 두 단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 보면 둘 다 emotion이 되므로, 번역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약 emotion을 '情感'으로 번역했을 경우, 이를 역으로 번역해 보면 sentiment가 되므로 이는 틀린 번역이 된다. (물론 훌륭한 번역문이란 반드시 원문으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단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21. 영 · 중 대조 번역

번역가들은 확실히 영·중이 대조되어 있는 책에 어느 정도 부담을 갖는다. 그렇다고 영·중대조문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 단어와 문장을 추가하고 삭제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원문이 옆에 있다한들 뭐가 두렵겠는가? 사실 영·중 대조 번역에서도 일반번역에서와 같은 번역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일반번역의 경우에도 영·중 대조에서와 같은 신중함이 필요하다. 번역 의뢰를 받았을 때 '영·중 대조문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을 기할 걸 그랬습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영·중 대조문이 아닌 짧은 글이 편집(「편집」장에 자세하게 서술됨)에서는 확실히 자유로운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중 대조 번역문이 편집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한 문장 이내, 혹은 한 단락 이내로 그 편집 분량이 비교적 적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번역이 아닐 경우에는, 문장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연결되기만 한다면 앞뒤 순서를 바꿔 번역해도 무방하다.

22. 기 타

번역은 예술이다. 이론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닌, 직접 작업하여 이루어내는 예술, 그리고 연구하고 사고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번역이다. 번역은 깨끗하게 빨 수 있는 와이셔츠 같은 것이 아니라, 옥을 다듬는 것처럼 끝없이 다듬는 과정의 연속이다.

시적 재능이 있어야 호메로스나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들의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면 일반적인 영어문장은 중국어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영어문장을 확실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다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없을 것이다. 언어의 이론 및 표현에 정통한 것과 각종 학술 내용에 통달하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번역가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잘 하면서도, 번역만 하려고 하면 말이 부자연스러워지고 말문도 막히게 되는 것 같다. 마치 한 태극권의 달인이 어떤 사람들은 '서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평한 것처럼 말이다. 언젠가 한 신문에서 '假如女朋友麥茜⁷⁾ 沒有這一种新意思, 我不會想到出的。'라는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본 적이 있다. 번역가는 글 한 편을 전부 번역한 후, 반드시 직접 읽어보고 '자기가 쓴 표현이 말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7) 여기서 '茜'자는 '欠'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종종 이 글자를 '西'로 읽는다. '周家的太太不姓綢(周씨 집 마님의 성은 綢가 아니다)'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언급하겠다.

Ⅲ.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필요한 기본조건

1. 중국어 작문 능력

중국어 작문 능력이란 수필, 기행문과 같은 글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고, 계약·서신·보험약관·영수증·광고 등등을 포함한 상업적 문서, 그리고 개인서한, 일반문장, 학술논문, 뉴스내용(정보·사설·시사평론), 시가(詩歌) 등등 각종의 글을 중국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번역가가 반드시 대문호이거나 훌륭한 시인, 신문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틀리게 쓰거나 잘못 읽는 글자가 거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단지 문언문과 백화문을 쓸 줄 알고, 전통적·현대적인 시와 사를 짓는 기초만 약간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기초가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다. 중국어는 잘하지만 영어 수준이 좀 떨어진 번역가의 번역 내용은 그런 대로 봐줄만하다. 그러나 제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중국어 수준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 번역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처음부터 끝까지 재작업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어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하다면 번역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준 높은 영어 실력

누구나 조금씩은 영어를 안다. 그러나 번역가는 영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중국어처럼 영어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더군다나 종류마다 모두 역사적 배경이 있고 학식과 관련된 부분도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없다. 이에 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갖가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영미(英美)문학 앞에서, 도대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영미문학을 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운동관련 서적을 자주 접하

지 않는 사람은 권투·테니스·축구·야구·승마 등 각종 운동에 대해 명확히 알
 방도가 없으며,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무의식중에 사용함으로써, 운동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서양은
 상업 국가이다. 그러므로 개개인마다 상업 전문용어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알
 고 있다. 이번에는 동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서양 동요에는 미국 서부변방의
 땅을 개척하여 금을 캐는 내용, 정치투쟁, 과학발전 등등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동
 요가 하나도 없다. 영어를 안다는 것은 사실 서양 생활과 서양사, 서양지리 등을 아
 는 것을 뜻한다. 또한 영어는 이미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영어를 안
 다는 것은 세계사와 세계지리, 세계의 수많은 것들을 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는 실로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참고서적을 활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

영어에는 고대 영어·중고시대 영어·근대 영어가 있다. 즉 셰익스피어 시대(즉
 엘리자베스 1세 여왕시대)에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어가 있었고, 18세기에는 18세
 기의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선 주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수 있다. 또한 영어에는 방언(소설에 가장 많다)·속어도 있고, 우아하고 고상한 말
 도 있다. 그리고 영국영어·미국영어·캐나다영어·오스트레일리아영어·뉴질랜드
 영어 등도 있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이 모든 영어를 전부 다 알아야 한다.

번역하는 사람은 책의 종류에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다 읽어야 한다. 이는 현실
 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이긴 하지만, 번역가라면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 영어책
 이라면 소설·시가(詩歌)·정론(政論)·산문 등은 물론이고, 동요(nursery rhyme
 s)·민요(ballads)·만화(comics) 등도 모두 섭렵해야 한다. 영어 문장을 읽다보면
 위아래 문장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문장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동요 가사였으며, 비록 위아래 문장과는 관계없지만 그 문장과 그 다음 문
 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외국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
 람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구도 동요를 전부 외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처하기 힘들다.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면, 얼른 *Dictionary of
 Quotations*의 색인을 찾아보기 바란다. 만약 운이 좋을 경우 그 문장의 다음 문장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서적」 장 참고바람)

3. 풍부한 상식과 지식

상술한 내용에서 보면, 영어를 안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어느 정도 학자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 물론 대단한 학자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그가 대단한 학자라면 번역을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번역가라면 최소한 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어떤 사람은 손에 책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 책 안에 자신이 찾으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지도 모른다), 필요한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교수님과 학우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번역가는 언어분야에서는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일반 학술분야에서는 고증 및 증명경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또한 번역가라면 최소한 한 두 분야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번역가가 문학가(문학가가 번역 일을 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라던가, 교사였던가, 혹은 전직 신문기자·상업계통의 비서·회계사·공무원·구기종목선수·육상선수 등등이면 좋다. 물론 과학자가 과학 관련서적을 번역하고, 역사학자가 역사 관련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하다. 아무튼 번역가의 상식과 학식은 풍부할수록 좋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기자의 풍부한 상식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4. 문자에 대한 예민함

번역가는 문자에 예민해야 한다. 작가가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한 단락 한 단락마다 어떤 마음으로 글을 썼는지 알아야 하며, 자신의 번역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미리 감지해야 한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번역문도, 독자가 이해를 못 하거나 우스꽝스럽다고 여기거나, 혹은 다른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문자에 대한

예민함은 천부적인 자질과 관련 있긴 하지만, 훈련을 통해 더욱더 발휘할 수도 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남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며, 많이 연습하는 번역가야말로 문자에 예민한 번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종종 평이하다고 여기는 영어 문장에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문자에 예민한 이는 방심하지 않고 책을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5. 상 상 력

번역가는 자신이 직접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글 속 등장인물의 신분·심정·말투를 상상할 수 있어야한다. 어린 아이의 말을 영감 말투로 번역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곤잘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은 말할 때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삼류 소설가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번역가들이 화자가 아무 것도 모르는 꼬마아이인지 아니면 학식이 깊은 대학 교수인지도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가 마음대로 천편일률적인 단어와 말투로만 번역문을 이끌어 간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실제로 상상력을 요하는 부분은 매우 많다.

6. 근면 성실한 자세

이는 모든 일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미덕(美德)이겠지만, 번역가라면 더욱 갖추어야할 조건이다. 사전을 많이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며, 많이 생각하고, 또 원문과 번역문을 여러 차례 대조해 보고, 번역문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해야 한다. 번역을 다 했다고 해서 그대로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 이상,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수를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일류 번역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부주의한 탓에 결
과적으로 삼류 번역가로 전락하게 된 셈이다.

상술한 각 절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IV. 참 고 서 적

필자는 ‘모르는 게 없어야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다. 가장 훌륭한 ‘자문 상대’는 물론 사전이다. ‘사전’은 해박하기도 하거니와 인내심도 강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 차례 찾아볼 수도 있다.

작은 땅콩 노점을 차리는데도 ‘도구’가 필요한 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할 때 좀처럼 번역관련 참고서적을 이용하지 않는 걸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중사전(이 장에서의 ‘사전’은 ‘자전’도 포함한다)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껏해야 *P.O.D.*나 *The Merriam-Webster Pocket Dictionary*를 한 권 더 구입하는 정도이다.

솔직히 말해서 앞에서 말한 두 권, 그 중에서도 특히 *P.O.D.*는 정말 괜찮은 영영사전이다. 그러나 *P.O.D.*만 가지고 번역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영중사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아무리 잘 만들어진 영중사전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사전이 너무 오래되었다. 통용되고 있는 단어와 비교해 볼 때 사전은 항상 시대에 뒤쳐져 있는 편이다. 영영사전의 경우 일반적으로 3-5년에 한 번 개정증보판이 나온다. 한편 일부 사전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개정증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실 준비해 놓은 신판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신판에 대한 개정증보판은 이미 편집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Webster*, *Oxford* 등등과 같은 유명한 대사전들의 경우, 대다수의 전문가·학자·직원을 보유하고, 항상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문자 변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전 학자를 초빙한다. 그러므로 이 사전들을 이용할 때 우리는 매우 만족하게 된다.

영중사전의 경우, 영영사전이 출판된 후에야 그것을 바탕으로 편집과 번역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언제나 한 발 더 늦어지게 된다. 어떤 사전은 10년 전에는 매우 유용

했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되었다고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중국어 해석이 아무리 정확하다 하더라도, 영중사전이 번역용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사전 편집자 입장에서는 단지 독자들이 단어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한 단어가 몇몇, 심지어는 몇 십 개 각기 다른 위아래 문장과 연결된 문장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신경 쓰지 못한다. 그리고 똑같은 중국어 단어라 하더라도 단어 자체에서 파악할 수 없는 숨겨진 의미(connotation)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 이를 그대로 쓸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융통성 없고, 자연스럽게 완벽하지도 않으며, 이해하기도, 읽기도 어려워 꺼리게 되는 모든 번역문은 하나같이 영중사전을 이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사전에 한 단어 당 3-5개의 해석이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하곤 하는데, 사실 꼭 정확한 번역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번역가는 우선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위아래 문장을 꼼꼼이 잘 생각해 본 후, 그에 적당한 단어를 찾아 번역문에 써야 한다. (일부 중국 현대 백화문은 이미 영중사전의 영향을 받았다.)

He is a failure라는 문장은 영중사전대로라면 ‘他是個失敗者(그는 실패자이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그런대로 전달되지만,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어다운 문장이 아니다. 사전 편찬자는 failure라는 단어를 ‘失敗者(실패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 없다.

셋째, *W.T.N.I.D.*에는 45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이 단어들이 반드시 전부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중 대다수의 단어가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가장 큰 영중사전에 수록된 단어 수도 불과 10만 개를 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30여만 개 단어를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사전은 백과사전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어로 번역된 단어만 보고 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의 원 뜻을 알 수 없다. 게다가 중국어 백과사전은 오래 전에 편찬되어 수준도 떨어지고 내용도 빈약하다. 그러므로 영영사전과 영문 백과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W.T.N.I.D.*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일부 지식도 함께 제공한다. 이처럼 미국 사전은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번역하는 사람이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아래에 그 예가 있다)

다섯째, 영중사전에는 글자의 어원(즉 etymology)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너무나 빈약하다. 새로 나온 명사나 전문용어를 번역할 때, 글자의 어원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명사」장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글자의 어원은 단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영중사전에 나와 있는 중국어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한자는 그다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사전에 나온 해석 그대로 썼다가, 문맥에 맞지 않는 전혀 엉뚱한 단어를 씌으로써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그저 신중하지 못한 당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영중사전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자세히 찾아보면 이런 예는 얼마든지 더 찾아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형용사·부사·동사, 그리고 심지어는 무수히 많은 명사까지도 위아래 문장으로 인해 그 의미가 변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까지 사전이 모두 망라하기는 역부족이다. beautiful을 ‘美麗(아름답다)’라고 번역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I had a beautiful moment that afternoon을 ‘那天下午我有了美麗的一刻(그날 오후 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번역했을 경우, 그런대로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美麗가 무슨 뜻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독자는 순간 아리송해질 것이다. 한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美(아름답다), 美麗的(아름다운 것, 미려한 것), 漂亮的(예쁜 것), 華麗的(화려한 것), 優美的(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른 사전에서는 ‘美(아름답다), 美麗(아름답다, 미려하다)’로만, 또 다른 사전에서는 ‘美麗的(아름다운 것, 미려한 것), 美觀的(보기 좋은 것), 美的(아름다운 것, 미적인 것)’로 해석하고 있는데, 모두 맞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그 번역가는 “보세요, 사전에 이렇게 밖에 안 나왔는데, 제게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는 번역가와 달리 영중사전을 찾아보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그저 모르는 것일 뿐이다.

이제 C.O.D에 나와 있는 해석을 보도록 하자.

Delighting the eye or ear, gratifying any taste... morally or intellectually impressive, charming, or satisfactory.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영증사전이 다른 느낌(예를 들면 청각, 촉각, 이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시각'적 쾌감에 대해서만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W.N.W.D.* 중 이 단어의 SYN(onym)(동의어) 다음에 나와 있는 설명을 살펴보자.

beautiful is applied to that which gives the highest degree of pleasure to the senses or to the mind and suggests that the object of delight approximates one's conception of an ideal.

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된다.

*W.T.N.I.D.*에 나와 있는 beautiful에 대한 해석 중 세 번째 해석이 매우 적절하게 잘 되어있다.

③ generally pleasing : Fine, Excellent, Delectable: superlatively good: lacking anything detracting from enjoyment <beautiful weather: a beautiful friendship: a beautiful roast turkey>

이 영증사전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장을 '那天下午我有一會兒工夫, 舒暢極了(그 날 오후 나는 아주 편안한 한때를 보냈다).'로 번역할 수 있다. 물론 beautiful을 '寫意(편안하고 자유롭다)', '心曠神怡(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유쾌하다)', '適意(기분이 좋다)'등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 '美麗(아름답다)'의 뜻은 절대 아니다. '美麗'로 번역하는 것은 직역으로, 이 문장에서 오역이 된다. (소위 대부분의 '직역'은 오역이다)

일반 영증사전에 Myth는 모두 '神話(신화)'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神話(신화)'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 a myth of racial superiority used to justify discrimination (*W.T.N.I.D.*)이라는 문장에서의 myth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까?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用來替歧視辯護的種族優越的神話(차별을 대신하여 변호하는데 쓰이는 종족 우월적인 신화)’라고 번역할 것이다. 하지만 독자는 이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기존의 영증사전을 보지 말고, 영영사전을 보도록 하자. *W.N.I.D.*에 나와 있는 해석은 아래와 같다.

③ a: a belief given uncritical acceptance by members of a group esp. in support of existing or traditional practices and institutions.

여기서 우리는 myth가 ‘神話’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일 독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謬論(황당무계한 논리)’, ‘謬說(잘못된 논조)’, ‘妄論(터무니없는 논리)’, ‘人云亦云(부화뇌동하다)’, ‘成見(선입견)’ 등의 단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무난할 것이다.

rain forest는 그냥 ‘下雨的森林(비 내리는 삼림)’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평이한 단어처럼 보인다. 게다가 일반사전에도 별다른 해석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W.T.N.I.D.*를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a tropical woodland that has an annual rainfall of at least 100 inches and often much more, is typical of but not wholly restricted to certain lowland areas, is characterized by lofty broad-leaved evergreen trees forming a continuous canopy, lianas, and herbaceous and woody epiphytes and by nearly complete absence of low-growing or understory ground-rooted plants — called also tropical rain forest.

이 해석으로 볼 때, ‘下雨的森林’이라는 번역만으론 불충분하다. 역자는 다른 번역문을 참조하여 적당히 주석을 달거나 혹은 보충설명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대략적이거나 알려줘야 한다.

Whoosis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사람들은 이를 고유명사로 착각하여 음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W.T.N.I.D.*를 찾아보면 이 글자는 who's this의 축약형으로, 그 뜻은 ‘某某(아무개)’ someone or something whose name one does not

know or cannot recall...임을 알 수 있다.

Sheltered workshop도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上面有遮蓋的工場(위에 차양이 있는 공장)’으로 잘못 알고 있다. 만약 불안한 마음이 가지 않아 *W.T.N.I.D.*를 찾아보면, sheltered가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protection from competition esp. from abroad

그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져 있다.

providing a noncompetitive environment for the useful occupation and training of persons (as the physically disabled, the aged, or emotionally disturbed or handicapped children) in order to promote their adjustment and rehabilitation <~workshop><~employment>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다. 만약 이런 단어에 관심이 있다면, *W.T.N.I.D.*의 strapping passes(pass³N14), radio beam, still camera 등등을 찾아보기 바란다.

sophisticated라는 단어에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었는데, 현대 영중사전에는 아직 수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구미(歐美) 사회에는 일용품 하나하나를 매우 중시하여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물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회를 일컬어 sophisticated라고 한다. 이 단어는 ‘소박함과 자연스러움의 결여’라는 원뜻에서 파생되어 ‘지나치게 중시하다’라는 새로운 뜻을 갖게 되었다. 처음에 사용할 때는 비난, 경멸의 뜻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만약 한 친구에게 sophisticated라고 말해도 상대방은 화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이는 아부성 발언이기 때문이다.

a sophisticated camera는 ‘精巧的照相機(정교한 카메라)’라는 뜻인데, 영중사전에는 이 단어의 해석도 수록되지 않았다.

다른 예로, 영중사전을 찾아보면 cribbage는 ‘王牌玩法之一(포커 게임의 하나)’, ‘一種紙牌戲(일종의 트럼프 놀이)’로, tyrannosaurus는 ‘一種恐龍(일종의 공룡)’으로

해석되어 있다. 이런 해석을 어떻게 번역문에 쓸 수 있겠는가? 많은 종류의 벌레, 어류, 풀, 나무, 조류, 짐승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다.

demure는 침착한 여성을 형용하는 단어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 영중사전에서는 ‘率直, 認真(솔직하다, 성실하다)’으로 오역하고 있는데, 이는 sedate and sober 라는 영어 해석과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 이는 사전이 믿을만하지 못한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fist를 모든 영중사전에서 번역하는 것처럼 ‘拳頭(주먹)’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held in the fist 라는 구에서는 ‘握在拳頭里(주먹에 쥐고 있다)’가 아니라 ‘握在手裡(손에 쥐고 있다)’의 뜻이 된다. 그 이유는 영어해석에 따르면, fist는 clenched hand (C.O.D.), a hand with fingers doubled into the palm (W.T.N.I.D.) 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중사전이 믿을만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영영사전을 일일이 찾아보기란 물론 고생스러운 일이지는 하다. W.T.N.I.D.와 같은 대사전에서, 단어의 해석이 긴 경우는 해석만으로도 글 한 편 길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면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체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손수 찾아볼 수밖에 없다.

번역할 때는 영영사전 이외에 백과사전도 이용해야 한다. *The Columbia Encyclopaedia*와 *Everyman's Encyclopaedia*는 모두 고가(高價)는 아니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글을 번역할 때, 만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총론에서 번역가는 영어만이 아니라, 역사·지리·문학·종교·윤리·정치·경제·자연과학 등등을 포함한 모든 서양학문을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저자는 종종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고 가정하여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양에서 교육 받은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므로 *Cassell's Encyclopaedia of Literature*, *The Reader's Encyclopaedia* (William Rose Benet), 의학·동물·식물·광물·지질 등등의 각종 전문사전, 심지어는 라디오·텔레비전에 관한 전문사전들도 수시로 참고해야 한다. 이전에 필자는 영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영문학을 조

금 아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제야 영문학에서 접했던 것들이 모두 서양문학이며, 그 중 세계문학도 일부 포함돼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배우는 개념만이 아니라, 영어권 사람들의 학문, 즉 영어권 민족, 서양세계,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전 세계와 관련된 학문을 아는 것을 말한다. *Cassell's Encyclopaedia*에는 많은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한 예로, Spanish Literature라는 그다지 짧지 않은 논문도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스페인 문학의 면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스페인 문학에 관련된 글을 번역할 경우 먼저 Spanish Literature를 보면 분명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Columbia Encyclopaedia*에도 Spanish Literature가 있는데, 약간 짧기는 하지만 역시 참고할 만 하다. 글 한 편을 읽고 그에 대한 인상을 얻은 후, 다시 관련된 다른 글을 읽으면 그 인상은 입체적으로 변하게 된다. 찾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아야만 원문에서 말하는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매끄러운 글로 번역해 낼 수 있다.

백과사전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실수 또한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선입견이나 실수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제목에 대해 백과사전을 여러 권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백과사전을 찾고 사전을 찾는 일은 고생스럽기도 하거니와 번역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N.I.D.*에서는 장장 10,000자에 걸쳐 take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전부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000자 이상은 읽어 봐야 한다. 그리고 *S.O.D.*에서도 5,000자 이상에 걸쳐 이 단어를 해석하고 있다. 이리다보니 몇 글자만 찾아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다행히 대사전을 찾아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백과사전에 수록된 내용이 더 길긴 하지만, 꼭 봐야 할 부분 또한 그다지 많지 않다. *Everyman's Encyclopaedia*에 1·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두꺼운 책 한권 분량에 달한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에 부딪혔을 때 책을 찾아보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더 있겠는가?

*S.O.D.*는 옥스퍼드 대사전을 바탕으로 편찬된, 영국의 문학명작을 번역하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참고서적이다. 이 사전은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개일 경우, 그 뜻

이 생긴 연대에 따라 단어의 뜻을 순서대로 나열함으로써, 한동안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이미 소멸된 뜻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사용했던 단어의 의미와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Jane Austin의 작품을 번역하는 이는 반드시 이 사전을 참고해야 한다. Charles Lamb은 산문에서 가끔 일반 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곤 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번역하고자 한다면 더군다나 이 사전을 꼭 찾아봐야 한다. (Shakespeare의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은, 물론 C.T.Onions가 편찬한 *A Shakespeare Glossary*를 빼놓을 수 없다. 영국의 *The New-Arden Shakespeare*와 마찬가지로 *The Penguin Shakespeare*에도 주석이 많이 달려 있어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A Shakespeare Glossary*가 더 유용하다.)

1917년 판 *W.N.I.D.*에도 단어의 연대별 철자법이 나열되어 있어, 옛 철자법을 사용한 단어를 번역해야 할 경우 도움 된다. 한 번은 영국의 Izaak Walton이 저술한 *The Compleat Angler*라는 책 제목 중 *compleat*라는 단어 때문에 어지간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W.N.I.D.*에 나와 있는 철자법에 대한 해석부분을 읽고 나서야 이 단어가 *complete*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비교적 많은 수량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Milton이 썼던 *com*(=come)에 대해 *W.N.I.D.*에서는 *come*의 옛 철자법이라고 상세히 주를 달고 있다(Obs. or dial. var. of *comb, come*) (그러나, *W.T.N.I.D.*에는 이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유명한 문학작품을 번역하든 아니면 현대문을 번역하든, 소형사전보다 대형사전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 이유는 *C.O.D.*, *W.N.W.D.* 등등의 소형사전이 지면 제한으로 인해 대강의 뜻만 대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대형사전에는 세세하게 전문화된 해석이 수록되어 있어, 그 해석에 따라 원문에 완전 부합하는 중국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W.T.N.I.D.*에 수록되어 있는 동의어에 대한 설명은 번역에 특히 도움이 된다. 번역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지, 원문의 확실한 의미를 잘 모를 때, 혹은 적당한 중국어를 찾지 못할 때에는 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의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번역가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참고 서적이 한 권 더 있는데, 바로 *Bible Concordance*(성서 용어색인)이다. 만약 어떤 글에 성경 한 구절이 나왔는데, 어느

장 어느 절에 있는 구절인지 모를 때 이를 번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고생만 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천주교나 기독교에 모두 성경 번역본이 있으므로, 어느 것이든 concordance를 찾아보기만 하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Shakespeare의 concordance도 유용하다. 다만 이 중국어 번역본들이 아직 완벽하지 못함이 아쉬울 뿐이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성경』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참고하면 최소한 오역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는 속어가 매우 많다. 육군과 해군·마피아·마약 중독자·재즈음악가·대학생·중학생·연예인·철도 노동자 등등이 사용하는 속어는 그야말로 또 다른 언어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소설 혹은 잡지에 실려 있는 글을 번역하다가 이런 속어로 이루어진 대화문을 접하게 되면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Harold Wentworth와 Stuart Berg Flexner 두 사람이 공동 편찬한 *Dictionary of American Slang*은 매우 유용한 참고 서적이다. 미국소설을 번역하다가 'what's a news?'라는 문장이 나오면 대부분은 질문이라 여겨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有什么新聞嗎?(무슨 뉴스거리 있어요?)'라고 번역해 버린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질문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이어진다. 이럴 때 단순히 동문서답이라고 여겨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이 말은 미국의 속어로 중국인의 '吃飯了嗎?(식사 하셨어요?)'에 해당하는 일종의 안부 인사말이다. 이런 문장은 이 사전, 즉 *Dictionary of American Slang*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어 단어를 찾을 때, 우리는 시운(詩韻)의 배열처럼 단어의 끝 글자 순서에 따라 배열된 사전이 한 권 더 필요하다. 만약 '風'이 들어간 단어를 찾고자 할 때, 우리는 '風波', '風標', '風平浪靜', '風靡' 등뿐만 아니라, '高風', '流風', '暖風', '祥風' 등도 찾아봐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받을 때 우리는 '求診'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 단어의 끝 글자 순서대로 배열된 사전을 보면 '(医生)應診'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

8년에 걸친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의 문화사업은 중단되었었다. 그리고 항전 승리 이후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사전을 편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책을 재출판만 해도 모두들 앞 다투어 사기에 바쁘니 참으로 한탄스

러운 일이다.

설령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종 외국어 사전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 한 예로, 스페인 축구팀에 Real Madrid라는 팀이 있는데, 신문에서는 대부분 '眞馬德里'라고 번역하고 있다. 'Real이 '眞(진짜)'의 뜻이 아니었나?'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영어식 해석이다. 스페인 축구팀이 왜 굳이 영어 이름을 쓰겠는가? 그리고 馬德里 축구팀의 이름을 사칭하는 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이 팀은 영문 명칭이 사칭당할 것을 우려하여 동서고금 간에 통용되는 방법, 즉 '眞正陸稿荐', '眞××教會'등처럼 원래 이름에 '眞'자를 덧붙이는 방법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real은 regal, 즉 royal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홍콩의 번역 방법에 따라 이 팀의 이름은 '皇家馬德里隊'로 번역해야 한다.

이 실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즉, 영어권 국가의 고유명사가 아니라면 설령 그 단어가 영어와 흡사하다 하더라도, 이를 영어로 여겨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해당 언어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

학식이 깊은 한 번역의 대가는 학문 연구 시의 참고서적 사용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으며, 중요한 부분은 직접 원서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문을 하는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O.E.D.이다. *Encyclopaedia Britannica* 등의 참고 서적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만약 참고 서적마저도 들춰보려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아래에 괜찮은 영영사전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 가장 완벽한 사전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이 사전에 수록된 단어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하는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해석이 상세히 되어 있어 적당한 중국어 단어를 찾는데 용이하므로, 번역가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글자체가 너무 작고 가격 또한 비싸다는 점이다.

2. *The Random House Dictionary* : 최근 출판된 사전으로, 상당히 완벽하며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글씨체가 크고 뚜렷하며 해석이 간단명료하다. 각종 외국어 부록본 및 지도를 별첨하고 있으며, 백과사전적 성격도 띠고 있다. 발췌본도 따로 있

는데, 사전보다 더 최신판이다.

3.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 대형 Oxford(*O.E.D.*) 사전은 고가인데다가 일반인들이 사용방법을 터득하기에는 무리이니, 부득이한 경우 이 사전을 사서 참고하면 된다. 이는 유명한 영국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전으로, 찾고자 하는 문장이 바로 사전 속 한 단어에 대한 예문일 수도 있다.

4.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 : 각종 외국어 발음지침이 수록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5. *The Columbia Encyclopaedia, Everyman's Encyclopaedia* : 두 권 모두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내용도 괜찮다.

각종 외국어 사전은 모두 구비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전문사전도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모두 구입하는 것이 좋다.



V. 고유명사 번역

간단해 보이는 고유명사도 막상 번역하려면 결코 만만치 않다.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 대충 할 수도 있고 또 고심하며 번역할 수도 있는데, 설령 대충 번역한다 하더라도 맞게 번역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며, 심지어 상관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유명사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언어 음성분야의 지식과 중국어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어 고유명사 발음은 매우 어렵다(아래에 그 예가 많다). 그리고 영어에는 영어 발음과는 다른 '외국'(영국·미국이 아닌) 인명(人名)과 지명(地名)도 적잖게 나온다. 그러므로 만일의 경우 이를 잘못 번역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런 외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전부 알 수 있겠는가?

실사 외국어 음을 안다 하더라도 그와 음이 유사한 표준어를 찾아 표현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표를 한 장 작성하여 이 음은 이 단어로, 저 음은 저 단어로 번역하기도 한다. 한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니 이런 방법도 괜찮기는 하다. 그러나 막상 직접 하려면 이 역시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고유명사 번역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영어에서 인명과 지명을 나타내는 음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번역명칭 중에는 우스꽝스럽게 오역된 것들이 허다한데, 사실 이는 실수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이다. 세계 각국의 기본 자오선은 영국 Greenwich 천문대의 자오선으로, 이 지명은 일반적으로 '格林威治' 혹은 '格林維基'로 번역된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이 단어를 [grinidʒ]로 읽는다. 그러므로 이와 가장 유사한 음은 바로 '格林尼基'가 된다. 하지만 이 오역된 단어가 이미 굳어졌고, 또한 이제 와서 고쳐봐야 소용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다. 유명한 소설의 등장인물인 '福爾摩斯(셜록홈즈)'는 '何姆思'라고 번역해야 한다.(만약 '姆'자가 고상하지 않아 꺼려진다면 '穆'나 '默'를 써도 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순수한 m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글자는 '姆媽'라는 단어에 쓰이는 '姆'자 하나이다. 물론 광둥어의 '唔', 소주어의 '嚙', 북경어의 '我們'의 변

음인 ‘我’자 등도 있지만 이는 더더욱 보편화 되지 않은 글자이다.)

영어, 불어, 독어 등 다른 나라의 자음(consonants), 예를 들어 각국의 r, 영어의 th(유기무성음인 θ, 유성유기음인 ð)등은 중국어에는 없는 자음이다. 그리고 불어의 φ등처럼 어떤 모음은(vowels) 중국어로 표현할 만한 글자를 도통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가장 유사한’ 글자를 찾아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인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지금껏 영국 19세기의 산문대가인 William Hazlitt의 성을 [hæzlit]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Daniel Jones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의 성은 [héizlit]으로 발음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의 ‘哈斯立特’는 ‘亥斯立特’로 고쳐야 한다. 여기서 고치고 못 고치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다만 ‘고유명사의 독음을 파악하기란 예상 밖으로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18세기 영국의 대시인 William Cowper의 성은 ‘考勃’가 아닌 ‘庫勃’로 번역해야 한다. 보통 Cowper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성을 ‘考勃’라고 읽기는 하지만, 시인 자신은 ‘庫勃’로 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주인을 따른다’는 기준에 따라 ‘庫勃’라고 번역해야 한다.

영국의 대시인 Samuel C.T.Coleridge의 예를 더 들어보자. 그의 성 Coleridge에서 ‘e’는 묵음이다. 그러므로 그의 성은 ‘柯勒瑞基’가 아닌 ‘柯爾瑞基’라 번역해야 한다. 시인 겸 비평가인 Matthew Arnold의 성 스펠링 중 ‘o’ 역시 묵음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安諾德’라고 번역해선 안 된다. (오늘날 미국인들은 이 ‘o’자를 발음하고 있지만, 영국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유명사 번역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사전을 찾아 정확한 발음을 찾고, 다시 그에 적당한 한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수월한 방법은 없다. 영어는 순수 표음문자가 아니다. 게다가 영국인들마저도 영어를 정확하게는 발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어 단어 철자법에 따라 자신의 판단대로 음역해선 절대 안 된다.

Lord Ponsonby는 한 산문에서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Marjoribanks(‘馬契(혹은 ‘希’)班克斯’로 번역해야 한다), Cholmondeley(‘秦利’로 번역해야 한다), Menzies(‘孟席斯’, ‘孟額斯’, ‘孟叶斯’, ‘孟格斯’, ‘明額斯’, ‘明格斯’등 여러 가지 독음법이 있다), Dalziel(스코틀랜드에서는 ‘第艾爾’로 읽는다), Home(‘休姆’라 번역해야 한다) 등처럼 그렇게 틀리기 쉬운 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못 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Ponsonby는 그의 집안사람들이 부르는 습관에 따라 ‘噴森比’라고 발음해야 한다.(이름에 ‘噴’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 ‘矜’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彭’을 쓰는 것이 좋겠다. 또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이 단어의 악센트를 제 2음절에 두어 ‘彭頌比’라고 읽는다고 하니, 중국어로 ‘彭頌比’라고 번역해도 물론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는 ‘가장 유사한’ 음은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한 신문에서 미국의 Ridgeway를 ‘李格威’라고 오역하고는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자 뉴스에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되었다. 번역계 선배의 말에 따르면, 만약 자신의 실수를 알았다면(다른 신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틀릴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번역명칭을 정정하고 괄호 안에 “본지에서 어제는 ‘李格威’라고 번역했음”이라고 덧붙이면 된다고 한다.

영미(英美)인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모든 국가의 언어를 영문 알파벳 철자로 전부 바꿔 쓴다. 물론 이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그러나 서양 각국의 인명은 원래부터 알파벳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영문 알파벳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원래의 인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만약 영어 독음대로 한다면 이탈리아의 Leonardo da Vinci의 성은 Vinchi가, 그리고 프랑스 시인 Francois Villon은 Fhahngswa Viyong이 돼야 한다. 만일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면 중국 번역가들이 고유명사를 오역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이다.

인명을 번역할 때는 음만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음과 뜻 모두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번역가들은 상황에 따라 음과 뜻을 동시에 번역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 중국에 ‘蕭’라는 성이 있고 ‘伯訥’라는 이름도 흔하기 때문에, Bernard Shaw를 번역하기란 물론 매우 쉽다. 그러면 Feodore Mikhaylovich Dostoevski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杜思托也夫司基’(이 일곱 글자는 러시아 음과도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는 전혀 중국인의 성 같지 않으니, 이 경우에는 중국식 성을 차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성이 ‘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성이 邱, 羅는 아니지만 邱吉爾(처칠), 羅斯福(루즈벨트)는 모두 좋은 이름이

다. 예전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刹, 陀, 涅 등처럼 뜻이 없는 글자를 써서 외국인의 성과 이름을 번역했는데, 한눈에 이 사람이 중국인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으니 매우 훌륭해 보인다. 영국인과 미국인들은 '외국인'의 성 앞에 그 나라의 칭호를 써서 국적을 표시하곤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인에게는 M., 독일인에게는 Herr, 스페인 사람에게는 Señor 등(이는 모두 'Mr.'의 뜻이다)을 덧붙인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도 구태여 蕭나 杜 등 중국식 성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외국어 음 중에는 중국어에 없는 음들이 많다고 필자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리고 방언에는 있지만 표준어에는 없는 음도 있다. -lam, -tam 등은 광둥어와 복건어에는 있지만 표준어에는 없는 발음이다. 그러므로 표준어로는 lan과 tan 음의 글자로 번역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만약 두 글자로 표기가 가능하다면 '蘭姆', '覃姆'로 번역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상 두 글자로 표기할 수는 없다. 게다가 글자가 많아지는 것도 되도록 피해야한다.) 내가 말하는 '가장 유사한' 음이란 바로 이런 것으로, 이 역시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타협이다.

표준어에는 zhi, chi, shi, ri라는 설첨후음(舌尖後音)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방 지역에는 이 발음이 없다. 물론 이는 영어에도 없는 발음이다. 그러므로 '卓, 常, 生, 榮'등과 같이 설첨후음이 들어간 단어로는 영어 음을 번역할 수 없다. 남부 지역 사람들의 발음에 잘 맞는 'Smith(史密士)'는, 남부 방언으로 읽었을 때와 표준어로 읽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들의 'Smith' 발음을 표준어로 표기하면 '斯密司'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詹姆士', '史蒂文生'도 모두 고쳐 써야 한다.

'噴', '敗', '稗', '嘖', '悲', '卑'등과 같은 글자들은 인명 번역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고의로 농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놀릴 때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pa 음을 가진 글자로는 琶, 爬, 耙, 扒, 耙, 帕, 怕가 있지만, 이 중 '琶'자만 이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여자 이름에만 쓸 수 있을 뿐, 만약 남자 이름에 이 글자를 쓰면 너무 어색해지니,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해말 중 '派'자도 좋기는 하지만 표준어 발음으로 읽으면 발음이 또 달라지므로, 이 역시 인명에 쓸 수 없다.

추측컨대, 영중사전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의 음을 맨 처음 번역한 사람은 상해말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전에서 Edward를 '愛德華'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Edward와 가장 유사한 표준어 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ward라는 음은 표준어에서 ‘瓦’를 써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愛德華’라는 이름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다시 고칠 필요는 없다. (표준어에서 wa로 발음되는 음은 蛙, 窪, 挖, 漉, 哇, 汙, 洼, 瓦등 이 몇 글자밖에 없다. 물론 瓦자를 인명에 쓰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瓦자 이외에 인명에 사용할 만한 다른 글자가 있는가?)

지명을 보면, 의역한 것도 있고 음역한 것도 있다. Oxford를 ‘牛津’으로 번역한 것은 완전 의역한 것이고, Cambridge를 ‘劍橋’로 번역한 것은 음역과 의역을 절충한 것이다(미국 매사추세츠의 Cambridge는 완전 음역한 것이다). 영국 지명에는 뜻글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때는 의역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Aberdeen의 aber-는 ‘입구’, -bury⁸⁾는 ‘성채도시’라는 뜻이며, 泰晤士河(템스강)는 글자 뜻 그대로 번역하면 ‘넓은 강’이 된다. ‘외국’(영국·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지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어의 bach는 ‘작은 강’, 이탈리아어 Tripoli의 Tri-는 ‘3’, 터키어 Eskibazar의 Eski-는 ‘낡다’, 스페인어 Guadalquiver의 Guada-는 ‘강’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때는 그냥 음역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port를 ‘港(항구)’로, ‘-burgh⁹⁾’를 ‘堡(성채도시)’로, 독일어의 stadt¹⁰⁾를 ‘鎮(마을)’으로 번역하는 것은, 마지막 단어가 간단명료하여 의미전달이 잘 되므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만약 Hochstadt를 의역하지 않고 음역했다면, ‘厚赫鎮’이 아닌 ‘厚赫希台特’가 됐을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Massachusetts는 ‘麻省’으로 번역하면서, California는 ‘加州’로 번역한다. 이처럼 하나는 ‘省’을, 또 다른 하나는 ‘州’를 씀으로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현재 어떤 사람은 ‘麻省’을 ‘麻州’로 고쳐 쓰고 있지만,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Springfield를 ‘春田’으로 번역할 경우, ‘田’자 사용에 대해 고려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음역하는 것보다 田자를 사용하는 편이 확실히 간단명료하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아마 ‘春田’으로 번역하게 될 것이다. SanFrancisco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의역할 때는 ‘旧金山’으로, 그리고 음역과 의

8) 역주 : -burg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워터베리(미국)는 ‘물의 마을’, 캔터베리(영국)는 ‘켈트인의 성채도시’이다.

9) 역주 : 성채도시, 도시라는 뜻. 에딘버러(영국)는 ‘에드윈 왕의 성채도시’이다

10) 역주 : 마을이라는 뜻. 아이젠히텐슈타트(독일)는 ‘철강의 마을’이다

역을 절충했을 때는 ‘三藩市’로 번역된다. 지명에 사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도 있는데, ‘郎’이 그 한 예이다. 왜 ‘朗’자가 있는데 쓰지 않는가? 그밖에도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Lake Chiuta 호수를 번역할 때 -ta를 ‘塔’자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탑 때문에 이 호수의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모음(vowels), 특히 영어 모음은 제각기 읽는 방법이 다르다. 구강 내 조음 위치의 전후(前後), 입술의 개폐(開閉)여부, 혀의 고저(高低)등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음은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모음을 오역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사실 모음을 정확히 번역할 방도도 없다. 그러나 자음(consonants)은 모음과 달리 그 차이점이 명확하다. 발음하는 상황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음을 혼동하거나 오역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각국 언어의 모음에는 그 고유의 차이점이 있다. 이는 자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양 각국의 언어를 잘 아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Webster's Biographical Dictionary* 앞부분에 나와 있는 A Guide to Pronunciation 부분의 제 4절 Elements of Pronunciation of Foreign Names를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¹¹⁾ 예를 들면, 덴마크어의 aa는 ‘奧(그들은 ô라는 음성부호를 사용한다)’에, 핀란드어의 ai는 i의 장음(i, 국제음성기호는 ai이다)에, 그리고 독일어의 eu는 영어의 oi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j이다. 이 철자는 독일어에서는 y로(국제음성기호는 j이다), 스페인어에서는 ‘赫’로 읽는다(국제음성기호는 K이다. 이 음성부호는 소문자 k와는 다른, 후음(喉音)으로 내는 h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영어에서는 그냥 h로 쓰기도 한다). 이 음은 연속적으로 내는 발음으로, 독일 친구에게 음악가 Bach의 ch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의 d는 d로 읽지 않고, this의 th(국제음성기호는 ð이다)로 읽는다. 만약 이를 중국어로 옮기면 ‘斯’, 혹은 ‘茲’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독일어의 w는 v와 같고, 이탈리아어에서 c는 i나 e와 결합할 때 ch(국제음성기호 ʧ)로 읽으며, 프랑스어의

11) 영국 Nuttall's Standard Dictionary 뒤쪽에도 Pronunciation of Foreign Words 부분이 있는데,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h는 sh(국제음성기호 ʃ)로 읽는 등, 이 역시 그 예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결국 고유명사를 번역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전을 찾아보고, 그 단어의 음과 가장 유사한 중국어를 찾아 표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비록 음역이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을 찾아보지 않으면 아마 더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번역가는 각국 인명(人名) 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차이점을 모를 경우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스페인의 경우 모친의 성(姓)을 맨 마지막에 쓴다. 예를 들어 스페인 사람의 이름이 세 글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맨 마지막 글자를 성(姓), 그것도 부친의 성으로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페인에서 부친의 성은 뒤에서 두 번째 있는 글자이다. 실례를 들자면, 『吉訶德先生傳(돈키호테)』을 쓴 유명한 소설가 Cervantes(세르반테스)의 전체 이름은 Miguel de Cervantes Saavedra로, 얼핏 보기에는 성이 Saavedra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한 헝가리 사람들은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성을 앞쪽에 쓸 것이다. 예를 들어 Kun Bela에서 Kun이 성이다.

일본, 한국, 미얀마, 베트남(물론 중국도 포함된다)의 인명과 지명에는 어느 정도 한자가 포함돼 있는데, 아무 한자나 마음대로 고유명사에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이 고유명사 번역시 가장 힘들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말이 나온 김에, 이 국가들의 영사관이나 상사(商社)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고 넘어가자. 중국신문을 읽다보면 가끔 중국 인명 밑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음역'이 아니다. 사실 이는 역자가 영자신문에 나와 있는 중국 인명의 고유명사 한자를 잘 몰라 음만 같고 표기법은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번역가가 만일 표준발음 사용에 익숙하다면, 표준발음 색인표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 표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國音學生字匯』라는 책 뒤에 나와 있는데, 번역가들이 직접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동음자(同音字)들이 한 곳에 나

열리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동음자를 한번에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표는 인명과 지명을 번역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國語辭典』이 더 좋기는 하다. 해석까지 함께 나와 있어서 몇 페이지 더 들춰보기는 해야겠지만, 단어 뜻을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사전 본문을 다시 찾아 봐야할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이다.

Frederick을 Fred라 줄여 부르듯, 서양인들은 긴 이름을 줄여서 아명(兒名)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리고 그 뒤에 -y나 -ie를 덧붙여서 Freddy 혹은 Freddie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William이 Bill이라는 아명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름과 아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떤 글에 William Brown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성과 이름을 모두 호칭하고, 나중에는 Bill, Billy라고, 또 때로는 Will 혹은 Willy라고 호칭했을 경우, 만약 번역가가 이 이름들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독자는 이를 동일인물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번역가는 이름을 하나로 통일하고, 주석을 달아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한다.

‘杜思陀也夫司基’를 ‘杜氏’라고 부르는 것처럼, ‘氏(씨)’를 써서 긴 이름을 호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사람은 杜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뉴스에서나 쓸 수 있을 뿐, 다른 글에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번역은 다 똑같은 번역이지, 뉴스번역·문예번역 등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나 ‘氏’를 사용하는 방법은 격식을 갖추고 있는 글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뉴스에서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艾森豪威爾(아이젠하워)을 艾森豪로 줄여 부르는 것처럼, 긴 이름을 줄이는 것도 때로는 괜찮은 방법이다. 영어의 p, k, t, 심지어는 b, g, d까지도 만약 뒤에 모음이 오지 않을 경우, 거의 대부분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Robert의 t는 발음할 때 소리(voice)가 나지 않으므로 번역할 필요 없다.

영어에서 작가가 한 사람의 이름을 호칭할 때, 표현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름을 전부 부르기도 하고, 아명을 부르기도 한다고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the doctor(그 의사), the bachelor(그 독신자), the victim(그 피해자)등등 그 사람의 신분을 호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紅樓夢』에서 조설근(曹雪芹)은 가보옥(賈寶玉)을 호칭할 때 ‘이홍원(怡紅院)의 주인’, ‘바보 도령’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옥(宝玉)'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렀던 것 같다. 이는 바로 중문학과 영문학의 차이점이다.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름을 하나로 통일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William Brown의 경우, Brown으로 호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꼬마아 이나 소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아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어떤 글에 자기 자신, 삼촌, 남동생 등등 여러 명의 Brown 등장할 경우, 영문에서 는 이들 모두를 Brown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호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번역가는 여러 명의 Brown을 명확히 구분 지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 예로 이름과 성을 같이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경우 중국어에서는 그 대상 이 연로하신 분인 경우에는 '那老漢(그 노인)', 중년층인 경우에는 '那漢子(그 남자)',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那女子(그 여자)', '那婦女(그 여성)'로 호칭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인물이거나, 좀 생소하지만 중요한 지명인 경우에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 비교적 긴 글이나 책 한 권을 번역할 경우, 인명을 전부 번역 하여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표기해야 한다. 대충 번역하는 사람의 경우 짧은 글 한 편에서도 한 사람의 이름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芳, 華, 姍, 蘭, 絲, 琼, 妮, 姬와 같은 글자를 써서 여자 이름을 번역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영어에서도 여자의 이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이 역시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Nancy, Lucy의 -cy를 '茜'으로 번역해선 절대 안 된다. 이 단어의 발음은 西가 아닌 '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영중사전에서마저도 Lucy를 '露茜'으로 번역해놓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번역가는 남·여 이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John, Peter 등은 남자 이름이고, Mary, Joan 등은 여자 이름임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Leslie, Vivien은 남·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다. 한편 어떤 글에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그저 Brenda Jones라고만 썼을 때, 그를 남자로 단정 지어 '他'로 호칭해선 안 된다. 그 이유는 Brenda는 여자에게만 쓸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라틴어 규칙에 따라 여자 이름에는 Alberta, Augusta, Paula 등처럼 종종 -a를 쓰기도 하고, Caroline, Geraldine, Pauline 등처럼 -ine를 쓰기도 한다. 이런 점을 알고 있다면 번역시 도움이 된다.

라틴어 이름 중 -ius로 끝나는 이름은 거의 대부분이 남자 이름이다(예컨대 Confucius(공자), Mencius(맹자)등).

우리가 잘못 번역하기 쉬운 '외국인' 이름의 예를 아래에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Machar, Josef Svatoyluk, 체코 시인 — '馬卡爾'보다 '馬哈爾'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Mickiewicz, Adam, 폴란드 시인 — '密克維其'보다 '密茨克葉維其'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Oersted, Hans Christian, 덴마크 물리학자 — '奧斯台德'가 아니라 '歐斯帖斯'라고 번역해야 한다.

Simeon, 불가리아 국왕 — '息米恩'이 아니라 '息麻翁'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Cervantes Saavedra, Miguelde, 유명한 소설가, 『돈키호테』의 작가 — 우리는 이 작가의 이름을 '塞萬提斯'라고 번역해왔다. 그러나 스페인어에 따르면 '塞房泰斯'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혹자는 별 차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필자는 만일 큰 힘 들이지 않고 실제 이름과 더 비슷하게 번역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Saavedra는 '沙咪德拉'가 아닌 '沙阿費斯拉'로 번역할 수 있다.)

Czuczor, Gergely, 헝가리 시인 — '嗟操'라고 번역할 수 있다.

Nygaardsvold, Johan, 노르웨이 정치가 — '涅加茲伏爾德'가 아닌 '努高斯浮爾'로 번역할 수 있다.

Corneille, Pierre, 프랑스 극작가 — '考奈爾'이 아닌 '考奈依'로 번역할 수 있다.

Buchner, Georg, 프랑스 시인 — '布其納'가 아닌 '布赫納'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외국어 발음을 전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W.B.D.에 원문과 비슷한 음이 표기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니므로, 영문 철자법 그대로 유

럽 각국의 인명과 지명을 표기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겠다.

W.B.D. 앞에 나와 있는 Guide의 내용은 그리 쉬운 편이 아니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얘기는 이쯤에서 접어 두기로 하자. 어쨌든, 내 말의 요지는 바로 고유 명사를 번역할 때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명을 번역할 경우, '외국' 지명뿐만 아니라 미국 지명에도 주의해야 한다. Mojave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막으로, 얼핏 보기에는 '摩解夫'라고 읽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원래 멕시코의 일부였었고, 또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곳은 지금까지도 '摩哈非'라고 불린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미주(美洲)에 Quichua라는 인디언 족 언어계통이 있는데,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奎區阿'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만, W.T.N.I.D.와 C.E.의 발음기호에 따르면 '開其瓦'로도 번역할 수 있다.

어떤 '외국어' 고유명사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혹자는 이를 음역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는 고유명사는 함부로 음역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股份有限公司(주식회사)'는 영어로 Ltd.이다. 물론 이 단어를 '立滅貼碟(Ltd.의 음역)'로 번역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는 société anonyme, 이탈리아어로는 società anomina, 독일어로는 diegesellschaft mit beschränkten Haftung,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y Cía이다. 그러므로 상호 명을 번역할 때는 함부로 음역하지 말고, 외국어 사전을 찾아보든가, 아니면 해당 외국어를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 번역에서 알 수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지식이 필요치 않은 부분도 없다. 고유명사 번역조차도 이러한데, 추상적인 문자·문학 작품의 기교·독특한 말 등등을 번역할 때의 어려움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姚華農씨가 인명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걸 보면, 그의 중문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우 독보적인 존재이다. 이처럼 인명번역이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참 고 문 헌

- 21세기 연구회 지음, 김 향 옮김, 『지명으로 보는 세계사』, 시공사, 2001년
이기문 著, 『번역의 길잡이』, 백산출판사, 2001년
박종한 지음, 『중국어 번역 테크닉』, 중국어문화원, 2000년
최정화 지음, 『최정화 교수의 통역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년

